

2024학년도 하계 이화글로벌프론티어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중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경제금융 공교육 시스템
개선 방향성 제안”

Re-con

목차

I. 서론	3
1. 탐사배경	
2. 탐사주제 및 목표	
II. 본론	5
1. 이론적 배경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3. 국내사전조사	
1) 서울대학교 박형준 교수님	
2) 이화여자대학교 최윤정 교수님	
3) 양정중학교 김나영 교사님	
4) 대구교육대학교 김재근 교수님	
5) 유니어스 에듀 박소연 대표님	
4. 해외탐사	
1) UCL Ramin Nassehi 교수님	
2) the Money Chairty Workshop- Thomas Tallis School	
3) the Money Charity- Stephaine Fitzgerald	
4) Student Cooperative Manager- Tristan Becker	
5) Student Cooperative-the green club eSG	
6) the mLab - University of Mannheim	
III. 결론	41
IV. 참고문헌	48
V. 부록	50

I. 서론

1. 탐사배경

‘주식’, ‘비트코인’, ‘가상화폐’. 뉴스를 본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접해봤을 단어들이다. 금융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 저축, 투자 선택지의 폭은 넓어졌다. 이런 현실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경제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본 팀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있어 공교육 상 경제금융교육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여, 금융이해력¹⁾ 제고를 위한 탐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팀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금융교육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첫째, 금융지식이 금융태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23 OECD/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이해력 항목 중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에 비해 금융태도는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옴(56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주목해 금융지식²⁾이 금융행위³⁾와 금융태도⁴⁾에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금융교육을 재정비 및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이해력 점수 비교

(단위 : 점)

구 분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한국('22년)	67	76	66	56
'20년 ¹⁾	65	73	66	55
OECD 평균 ²⁾	63	67	62	58
전체 평균 ²⁾	60	63	61	56

주 : 1)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22년 변경된 OECD INFE의 점수산출방법에 따라 재산출

2) '20년 기준 국가별 조사결과 자료는 OECD INFE가 미발표

[출처: 한국은행]

둘째, 부모의 배경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는 금융교육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박주영과 심영의 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특성 차이가 자녀 대상 금융교육 실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자녀에게 금융 소비자교육을 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신이 금융활동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또한 펀드 및 일반 용어에 대한 지식, 일반 금융지식 수준, 교육수준과 월 평균소득도 더 높았다. (박주영·심영, 2021) 한국 금융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의 금융에 관한 관심과 학생들이 양질의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의 빈도가 서로 비례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환경에 따른 금융교육 수혜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측면에서 경제금

1) 금융이해력에는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2) 금융지식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이다.

3) 금융행위는 건전한 금융·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다.

4) 금융태도는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의식구조이다.

금융교육을 재정비 및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금융교육의 현황을 인식하여,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정책들의 시행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더해, 예년 3월에 발의된 「금융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높아진 관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불안정한 금융태도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전국의 금융회사와 여러 학교들이 결연을 맺어 금융교육을 진행하도록 ‘1사 1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며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아직도 경제금융교육에 큰 접근 장벽을 느낀다. 실제로 본 팀이 2023 창업아카데미 참여 당시 중학생~대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하의 경제 과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을 때, 50% 이상이 교과서적 지식이 어렵고, 실생활 경제와 괴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기 경제금융교육 및 본 교육과 관련된 정부 추진 방향성에 부합한 다양한 교육 활동들 활성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팀은 현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경제금융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금융이해력 향상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경제금융교육 선진국들과 비교해봄으로써 2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한국의 빈약한 조기 경제금융교육이 문제이다. OECD는 돈의 가치와 돈에 대한 인식, 계획성 있는 소비와 저축 등의 개념이 어렸을 때 형성되어야 이후에 실제 경험을 통한 금융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경제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금융교육 선진국들 중, 영국의 KS단계의 PSHE 교과목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PSHE 과정에서 OECD 권고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돈의 흐름과 거래, 금융 계획과 관리, 위험과 보상 등에 집중하여 배움으로써 금융의 실질적인 이해력을 높이려 함을 알 수 있다(이윤호, 2021).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조기 경제금융교육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민간 기관들이 경제금융교육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IW JUNIOR처럼 학생 회사를 지원해주는 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학생이 학생 회사 운영을 통해 경제생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기업적 사고와 운영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을 교육부의 보조 기관으로서 다져주고 있으며, 이는 독일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그 덕분인지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금융이해력 지수는 OECD 국가 중 무려 1위에 자리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경제교육단체 협의회가 있지만, 2017년에 설립되어 그 역할이 체계화되지 않아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윤정, 2020)이고, 금융감독원도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교육부 등에 비해 권한이 부족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황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공교육 내에 경제금융교육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영국 및 독일의 선례를 참고하여 한국 공교육 교실에 본 체계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중등교육에 주목하여 현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시행 가능한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논한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이해력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금융웰빙, 즉 일상 및 평생에 걸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체계의 구성을 목표로 한다.

2. 탐사주제 및 목표

본 팀은 “중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경제금융 공교육 시스템 개선 방향성 제안”을 주제로 잡아 영국 및 독일의 경제금융교육 방식을 참고하여 이를 한국의 현황과 분석하고 한국에도 실용화에 초점을 둔 ‘참여형 공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현장’에 대한 지침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영국 탐사에서는 우선 금융교육 전문가들에게 실용화에 초점을 둔 경제금융교육이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을 참관하여 민간단체와 공교육 간의 연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본다. 또한 비영리단체들의 운영원리와 그 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탐구한다. 독일 탐사에서는 학생회사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실전적 경제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독일의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단체들도 주목해 알아볼 예정이다. 유럽경제연구소(ZEW)를 방문하여 독일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체계, 금융태도 부문에서 OECD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요인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만하임 대학교 mLab을 방문하여 실험형 경제 수업 구성 요소에 대해 분석한다. 본 탐구를 통해 각국의 금융 교육과정, 공교육과 민간단체의 연계 체계, 학생 협동조합 구축 체계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교육 제도 하의 중고등학생 대상 참여형 프로그램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국내의 경제금융교육과정 실태

우리나라 경제 교육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교과서는 주로 경제 개념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용어 설명과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텍스트 분석 판단과 실사

례를 조사하는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학습자가 직접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미비하다. 중등과정에서는 경제의 개념, 미시경제, 거시경제 순으로 학습이 진행되는데, 미시경제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거시경제에서는 국제 거래와 환율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사회문화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은 미흡하다(유종열, 2021).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 과목을 통해 경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중학교에서 다루진 내용과 유사하며, 추가적으로 기업가 정신과 금융 설계 등이 심화되기만 한다. 또한 ‘경제’ 교과목과 ‘금융과 경제생활’은 선택 과목으로 제공되어 입시를 중시하는 교육 환경에서 실질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경제」 과목이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 과목의 ‘개인 금융’ 단원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으로 신설되었고, 교양 선택 과목으로 「실용 경제」 과목을 대체하여 「인간과 경제 활동」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문적인 관점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금융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 요소와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한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 이해’, ‘수입과 지출 관리 & 예산 수립’, ‘저축-투자 차이 이해 및 자기 책임 원칙에 따른 금융 의사 결정’, ‘건전한 신용 사용과 보험 및 연금’이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이수 시간이 기본 6단위(6단위*17 = 102시간)에서 4학점(4학점*16주=64시간)으로 40%가량 줄어든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대체로 5가지 영역과 각 영역당 4개의 성취기준(총 20개)이 제시된 반면, 2022 교육과정에서는 4가지 각 영역에서 3개의 성취기준을 작성하여 총 12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양적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2023) 하지만 경제 이론이나 복잡한 사례는 지양하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금융 생활을 소재로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금융교육의 토대를 마련했기에, 다수의 학교들이 이를 개설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를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제를 기대해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공교육 체제에서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도 금융수업이 개설된다. 자유학기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자유학기제) 또는 두 학기(자유학년제)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

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 강의식, 암기식 수업을 줄이고 토론·문제해결·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한다. 유형으로는 주제선택,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 영역이 있다. 주제 선택 활동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 금융교육은 2021년부터 시범 실시되어, 2024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26개였던 대상 학교도 2024년부터 150여개교로 대폭 늘었다. 자유학기제 금융교육은 일회성 성격을 띠었던 기존의 사업과 달리 강의 수를 7-8회로 늘려 수업 주제의 폭이 저축·소비·투자 등으로 넓어졌으며, 강의 방식도 이론 중심 강의에서 이론과 활동이 합쳐진 참여형 수업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태호, 2024) 그러나 본 팀이 진행한 유니어스 에듀 박소연 대표님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까지 학생들의 관심은 예술·체육 활동에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선택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금융교육 혁신과 비영리 단체의 역할

1) 영국의 금융 교육의 혁신은 200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영국 정부는 그때까지의 금융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금융교육을 재구성하고 강조하였다. 영국의 금융교육의 혁신은 두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 첫째가 ‘교육과정 내용’이고 둘째가 ‘교육 방법론’이다. 먼저 ‘교육과정 내용’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초중등과정, 즉 초기과정이다. 초중등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는 과목인 PSHE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경제학원론의 이론적인 개념을 배우기 보다는 금융의 실질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개념을 배우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기에 금융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금융 지식 양극화가 줄어들고,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다(김지경, 2023). 두번째로 ‘교육 방법론’의 측면에서 영국의 금융교육은 대체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한다. 영국은 학생들이 현실에서 발견되는 여러 금융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기에 영국은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내용만을 가르치기보다는, 현실에 적용하는 훈련도 할 수 있게끔 한다. 실제로 영국의 GCSE(우리나라 기준 중학생 수준의 단계)과정 때 배우는 경제교과목의 학습목표를 살펴보면, 기사를 읽고 현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만의 답을 낼 수 있도록 함을 학습목표로 내세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국 교육은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착안한 참여형 형태의 수업을 함으로써, 금융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2) 영국에서 공교육 하의 금융교육을 뒷받침하는 비영리단체들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로 제리 듀링의 ‘Money A+E’는 재정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제

대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MyBNK(마이뱅크)’는 금융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병행한다. 예를들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금융 역량과 각종 금융 위기 확대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연령별 금융 교육 수업 교재를 제작 및 배포하기도 한다. 더불어 학교 현장을 찾아다니며 금융 공교육의 공백을 채워나간다. 마이뱅크의 ‘머니하우스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 기술부터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행계좌를 어떻게 개설하고, 저축과 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일의 교육: 현실적 경제 교육과 학생 회사를 통한 실전 프로그램

1) 독일의 경제교육과정에서는 경제 관련 ‘범교과 학습 주제’와 ‘경제교육과정의 구조’가 두드러진다. 먼저 독일에는 경제교육과정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에 소비자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소비자교육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를 포함시켜 학습하도록 한 것이다. 독일의 교육은 실제 경제 상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생활 경제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초등과정 교과서에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판단력을 높이는 활동이 많다.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에는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텍스트를 판단하는 활동과 토론, 모의 활동들이 많다 (나용호, 2022). 이는 단순히 현상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금융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토론과 모의 활동들이기에 학습자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또한 독일의 교육 중 주목할만한 점은 학생 회사들의 활동이다. 학생 회사는 학생들이 실제 기업을 운영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다. 주 교육부는 학생이 학생회사 운영을 통해 현장을 경험하고 이후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생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 교육부는 학생이 학생회사 운영을 통해 경제생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기업적 사고와 운영 방식을 배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무용품, 기술 등을 구비하기 위해 최고 1,000유로(약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 교육부 외에도 genoverband 라는 기관은 학생회사 매니저를 각 주별로 두고 학생과 지자체 간, 또는 연방주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협동조합이 직면하는 실질적 문제들의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3) 주 교육부의 학생회사 설립 지원금을 받기위해 학생들끼리 학생회사를 통해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학생회사를 통해 시장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여건에 대해 배우고, 기업적 활동을 통해 관련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며 사회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대표적인 학생회사인 “Studentenfirma der Bismarckschule Elmshorn”는 학교 내 학생들이 자체

적으로 디자인한 제품들을 제품 생산부터 시작해 교내 화장실의 무료 생리학적 물품에 집중하여 판매 경험까지 한다. 학생들은 직접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시간당 임금, 세금 등을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의 자발적 능력을 키우고 경제적 흐름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하는 활동들이다. 이러한 참여형 현실적 활동들은 독일이 2023년도 '금융 이해력' 측면에서 OECD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는 바이다.

해외 '금융이해력' 관련 연구 동향

해외의 금융교육 분야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G53 Network에 소속된 학자들의 금융이해력 관련 연구를 참고하였다. G53에서는 금융이해력, 금융교육, 개인 재무 관련 주제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석학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COVID-19 팬데믹 위기 이후 본 분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학회 소속 석학들 중에, 본 팀의 탐사국가인 영국 및 독일에서 활동 중인 Melanie Luhrmann, Annamaria Lusardi, Carmela Aprea 교수님의 청소년 금융이해력 연구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으며 추가적으로 Economics Walk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UCL Ramin Nassehi 교수님의 연구도 분석하여 해외에서 진행된 금융이해력 연구에 대한 동향을 살폈다.

Luhrmann 교수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논문을 작성한 바 있는데, 그 중 우리는 두 논문을 우리의 선행연구 분석에 있어 핵심으로 보아, 집중분석하였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은 “Teaching teenagers in finance: does it work?”이다. 해당 논문은 금융 문맹이 개인의 재정적 결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 논문에서는 독일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단기 금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의 설계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교육을 받은 학생 절반과 받지 않은 학생 절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 지식’, ‘태도’, ‘행동’ 세 가지 부분에 있어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해당 프로그램은 총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쇼핑 모듈, 두 번째는 계획 모듈, 세 번째는 저축 모듈이다. 첫 번째인 쇼핑 모듈에서는 충동 구매의 위험성 및 광고의 목적,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 구별법 등을 가르쳤다. 계획 모듈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예산을 세우거나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저축 모듈에 있어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의 위험성, 유동성, 그리고 수익률의 관계 등을 설명하였다. 각 모듈은 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해당 연구는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 이전 기초 조사, 그리고 교육 이후 후속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저축 행동에서는 예상만큼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으로, 금융 지식과 태도 향상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정교화된 금융교육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재정적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두 번째 논문은, “The Impact of Financial Education on Adolescents’ Intertemporal Choices”이다. 위 논문은 청소년들의 ‘시간의 심리학’에 미치는 금융 교육의 영향을 집중조사한 논문이다. 우선 ‘시간의 심리학’이란 시간의 흐름 속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한 심리적 판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현재보다 미래 가치를 할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이는 투자, 저축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금융선택과 결부되었을 때 개인의 재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태도는 금융교육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암시되어있다. 해당 주제 하에서, 해당 논문은 위의 논문과 같이 독일 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듈 역시 동일하게 구성된 상태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시간 일관성 증가 및 오류율 감소의 결과를 보였고, 따라서 금융교육이 인간의 ‘시간의 심리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 입증되었다. 이는, 금융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이 실제 학생들의 선택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UCL의 Ramin Nassehi 교수는 경제 교육에 있어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많이 고안해냈으며, 이 중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제 산책’과 관련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본팀은 탐사에 앞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UCL Economics Walk: A place-based method of teaching economics”이다. 이 논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conomics Walk(경제 산책)이라는 혁신적인 경제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경제 산책 프로그램은, 런던에 위치한 Bloomsbury 길을 따라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경제 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 장소들을 체험하고 접하는 투어이다. 해당 투어는 16회 이상 진행되었으며, 2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었다.

본 투어는 기존의 투어와는 달리 대면 형식과 가상 형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2020년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비대면 교육 방식을 고려해 설계된 투어 진행 방식이다. 우선 대면 교육의 주요 활동은, 학생들이 블룸즈버리 길을 따라 걸으며 벤담의 오토 아이콘, 레닌의 집, 케인즈의 집 등 역사적·경제학적 주요 인물들과 관련 장소를 방문하며 관련 경제 이론과 현대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Nassehi 교수의 교육 방식이다. 비대면 교육의 주요 활동으로는, 줌을 활용해 학생들과 함께 맞춤형 구글 맵 살펴보기, 비디오 클립 및 음악 재생, 온라인 투표

진행 등이 있다.

해당 투어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경제학을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투어에서 Nassehi 교수는 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구축이다. 이러한 투어 참가를 통해 만난 참가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경제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높이는 것이 해당 투어의 목표 중 하나이다. 세 번째 목표는, 전통적인 강의실에서 벗어나는 교육이다. 본 투어는 런던의 거리 중 하나인 블룸즈거리(Bloomsbury)를 걸으며 진행이 된다. 이는 전통적인 강의실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 역동성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교육자와 학생들 간의 수평적인 대화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당 투어에서는 세 가지 교육 방법을 혁신적으로 투어에 결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장소 기반 교육이다. Nassehi 교수는 블룸즈거리 거리의 각 장소를 경제 이론과 결부하여 실제 사례를 탐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어를 기획하였다. 해당 방식은 학생들이 실제 사례와의 연결을 통해 경제 이론들을 더 잘 숙지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대화형 교육이다. Nassehi 교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사 및 투어 가이드의 역할에서 벗어나, 참가자들과 적극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이론을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설명한다. 이는 상호작용 기반의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 통합이다. 대면 투어를 진행함과 동시에 Nassehi 교수는 QR코드를 제시한다. QR 코드에 접속하면, 추가적인 설명을 담은 영상으로 연결된다. 이는 비대면 형식의 줌 투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본인의 투어에서 활용함으로써 참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산책, 즉 Economics Tour은 교실 내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경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배우고 접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는 경제금융교육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na Lusardi 교수님의 논문 중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resilience: Evidence from around the world (2019)’에는 금융 이해력 측정 도구가 명시되어 있다. 기본적인 4가지의 금융이해력 관련 질문을 제시하는데, 그 4개는 ‘기본적인 이자율 계산 능력’, ‘이자 지급 증가’, ‘인플레이션’, ‘리스크 분산’에 관한 질문이다. 4가지 질문 중 3개 이상 정답이면, 높은 금융 이해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성인 인구 수의 1/3 정도만이 높은 금융 이해력을 갖춘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취약 계층과 보통의 성인 집단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Standard & Poor’s

Rating Services Global Financial Literacy Survey (S&P Global FinLit Survey)와 함께 만 15세 이상의 15만 명 이상의 대상자들로 주관한 금융이해력 관련 설문조사 질문들은 이하의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 이자율 계산 능력: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개인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이자 지급 증가: 개인은 부채를 관리하고 저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 인플레이션: 개인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위험 노출 다각화: 사업과 개인 투자에서 위험을 다각화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는 것을 이해하기
- 이는 금융행위, 금융지식, 금융태도를 아우르는 질문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 측정 설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팀은 I. 서론 부분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나용호 교수는 「한국과 독일, 스웨덴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서의 경제민주주의-경제 영역에 대한 비교연구」 논문에서 '이 연구는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국과 독일, 스웨덴의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경제 단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교과서 경제 단원의 내용을 진단하고, 경제민주주의를 반영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팀은 경제금융교육에 있어 교과서상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교육 방법론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교과서는 교육에 있어 최소한의 지식 습득 기준이 되고 줄글로 된 내용만을 전달할 뿐, 지식 전달 방식 및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이 '경제 교육'을 바라볼 때 교과서상 지식 측면에서만 두 국가의 교육을 비교하고, 수업 환경이나 교육자의 재량까지 다루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본팀은 독일 공립 학교인 김나지움에 방문하였으며,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만하임 대학교 및 실험경제연구소에 방문하여 수업방법론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본팀이 탐사하고자 한 국가인 독일의 경우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어있다. 독일 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각 연방주 문화부에서 해당 주의 교육과정을 채택한다. 각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점과, 각 주마다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하여 교과서 채택 기준이 전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논문에서 가장 인구가 많

은 연방주라는 이유만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비교군으로 삼은 것은 독일 교육과정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로 이어지기 쉽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팀은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베를린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등 다양한 연방주를 탐사함으로써 다양한 연방주의 교육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심재학 교수의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태로 본 청소년 경제이해력 제고 방안 연구」 논문의 경우, 한국 경제교육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경제교육의 역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학교 경제교육의 변화와 역할, 문제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본팀은 한국의 경제금융교육 역사 및 실태에 대한 분석이 공공 교육 차원의 급진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교육이 교육 과정 내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타국의 선사례 참고 및 비교를 통해 한국의 객관적인 교육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교육을 38-40쪽에 걸쳐 간략하게 언급하긴 하지만, 이를 한국의 경제교육과 비교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경제교육 방식을 나열하는 데서 그친다.

김지경 외 2명의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조사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직후 생애 단계인 청년기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2022 청년재단 조사 등에서 포착하였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이나 청소년 금융이해력 함양을 위해 어떠한 측면의 교육이 보완 또는 강화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동시에 일상에서의 금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자료 확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공교육 하의 수업 모델 분석과 방법론적인 측면을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팀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에 근거하여, 독일 및 영국의 경제금융교육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실태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방법론, 수업 환경과 사회적 장치들에 대해 고안해보고자 한다.

3. 국내사전조사

1) 서울대학교 박형준 교수님

(1) 박형준 교수님 소개: 박형준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의 교수님이시다. 본 교수님의 주요 논저로는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희망’(2018), ‘경제교육지원법: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개선 방향’(2020), 한국과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 비교’(2022) 등이 있다. 또한 중학교 교과서 중 생활금융(2022)과 고등학교 교과서인 금융과 경제생활(2022 개정교육과정)의 공동저자이시기도 하며 한국의 금융교육을 주

도하시는 교수님이다.

(2) 방문 일시: 2024년 6월 18일

(3) 방문 목적: 2022 개정교육과정 파악과 그 외 공교육 협업 금융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4) 인터뷰 내용 정리:

본 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향후 금융교육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가 금융교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이 커진 시점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 및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현재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는 거시 경제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개인 금융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개인 금융과 관련한 과목이 독립된 융합 선택 과목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개인 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진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점점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점차 확대될 것인데 이에 따른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선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먼저 ‘경제’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되고, ‘금융과 경제생활’도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평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기존에도 상경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많았기 때문에 과목의 선택률이 점차 증가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경제와 관련된 과목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선택이 많아질 것이지만 그만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생긴다. 대표적으로 금융수업을 맡는 교사의 역량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의 경우 개인 금융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교육이 확산된다고 해도 불법 금융 상품 접근을 교육만으로 막기는 어렵다. 오히려 불법 금융 상품은 정부의 감독 기능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불법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합리적인 금융 행동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금융과 경제생활’과 더불어 학교에서 금융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존재하는데 실제 현황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융교육과 관련한 활동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공교육과 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은행에 소속된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는 1사1교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학교와 은행이 직접적으로 협업하여 학생들이 금융지식을 얻거나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금융 관련 활동들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황을 보면 1사1교가 학교에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내실 있는 금융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육한 내용을 중점으로 평가하지 않고 실적제, 즉 교육한 횟수로 실적이 처리되기에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유용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1사 1교 프로그램 외에 비영리단체와 금융기관의 금융교육 활동들도 많다. 금융 회사들은 자체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많은 금융교육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공기관에서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KB나 많은 금융회사들도 개별적으로 각자 목적에 맞게 금융교육을 진행 중이다. 비영리단체인 JA 코리아는 미국의 JA 주니어 어치브먼트의 라이선스를 받아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캠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학생 멘토를 선별해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자율 활동의 기회를 많이 부여할 것이다. 주로 학생들이 활동하거나 원하는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금융과 관련된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실제적인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가르칠 교사의 의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교사는 금융 관련 재교육을 받아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야 하고 학교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 금융교육 활동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교육과정 내에서 금융교육 관련 전반적 방향성이나 실태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특히 2022 교육과정에서 신설될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그 과목이 금융교육에 끼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개인 금융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과목에서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에 대한 기대도 엿볼 수 있었다. 즉, 수행평가를 비롯한 체험활동 주관에 대한 교사의 역량 강화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2025학년도부터 전반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만큼 고교학점제가 금융교육에 불러올 시사점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통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최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제·금융 관련 과목을 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공교육과 금융기관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1사 1교의 현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탐사 결과, 1사 1교 시행 학교에서조차 그 인지도는 높지 않았고, 그 존재에 대해 무지한 학교들도 많았다. 본팀은 본 교육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1사 1교의 한계점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고안했다.

1사 1교의 문제는 이하와 같다. 우선 1사 1교는 양적 측면을 측정하는 실적제라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1사 1교 강사들이 전문 교육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전달하는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현직 교사와 연계를 통해 1사 1교

수업 설계를 제안한다.



□ 서울대학교 박형준 교수님 인터뷰 현장

2) 최윤정 교수님

(1) 최윤정 교수님 소개: 최윤정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의 부교수님이시고 금융교육학회 이사이다. 본 교수님은 ‘고교학점제 시범 도입과 경제교육의 변화: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사회교사 대상 FGI 연구’(시민교육연구, 2023),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에서의 경제 영역 과목 개설·운영 현황 분석’(경제교육연구, 2023),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경험 중심 경제교육-미국 고등학교 금융교육 수업 사례연구’(시민교육연구, 2015) 등 금융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셨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금융교육이 어떻게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연구하셨다.

(2) 방문 일시: 2024년 4월 9일

(3) 방문 목적: 현 금융교육 실태 파악

(4) 인터뷰 내용 정리:

최윤정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 팀은 ‘선택과목으로서의 금융 교육’과 ‘참여형 수업 확대’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팀은 가장 먼저, 금융교육이 중요함에도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본 팀은, 국어, 수학, 영어 등 다른 기존의 교과들의 중요성에 의해 금융교육이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편성될 수 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전문가 입장에서 최윤정 교수는 금융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것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한다. 금융 과목을 반드시 모두가 듣고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이 아닌,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수업을 듣는 과목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 수업의 질 자체 개선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팀은 금융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남았다는 점이 해당 과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교육에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및 참여형 수업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경제금융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양정중학교 김나영 교사의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이 있다. 이는 독일의 학생회사 제도를 유의미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최윤정 교수는 학생회사 제도와 유사한 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성공적이었는지,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언급하였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참여형 활동 중 하나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금융교육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의 금융교육은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현재의 금융교육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을 중심에 둔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늘리면, 이는 성공적인 금융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금융교육 전문가가 바라본 현 금융교육의 실태를 탐구하고자 했다. 사람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본 교육과정은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되며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과목이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택됨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금융활동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본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시험 부담 감소는 경제과목 선택에 대한 거부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2022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시적이고 직관적으로 와닿을 만한 금융교육 체험활동들이 증가한다면 금융교육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실제 삶과 연계된 금융 프로젝트가 다수 시행되는 미국 교육의 선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자체적인 수입, 소비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훈련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양정중학교 김나영 교사님

(1) 김나영 교사님 소개 : 양정중학교 경제교사이자, 경제교육과 관련 도서를 집필하고 계신 작가이시다. 2009년도부터 교내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계시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경제금융교육 자료 개발 및 교재 집필에 참여하고 있으시다. 또 김나영 교사님은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2022)’,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2024)’ 등 경제교육의 실용화 측면을 강조한 관련 책을 내셨다. 2019년에는 대

한민국경제교육 대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하셨다.

(2) 방문 일시: 2024년 6월 13일 2시

(3) 방문 목적: 경제동아리 수업 참관 및 김나영 교사님 인터뷰

(4) 탐사 내용:

① 수업 참관

수업은 실험경제 수업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실험경제 수업이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경제이론을 적용해봄으로써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체적으로 그 이론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수업이다. 더 나아가 설계된 활동(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까지 대입시키며 아이들이 이론적인 지식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 이론과 결부된 여러 사회 현상들과 관련된 논쟁거리 등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의 시야 확장을 돕는다.

6/13 동아리 수업 내용 정리 <공공재 & 세금>

단계	가상 상황 설정	실험 진행	결과 도출 및 경제원리 이해	경제원리 활용
세부 내용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경제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문제상황을 제시한다.	가상 상황과 어울리는 실험을 진행한다. 이때, 가정이 추가되기도 한다.	실험 결과를 도출하여, 수치화시켜 이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경제원리를 공부한다.	해당 경제원리와 관련 있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거나, 논쟁거리를 제공하여 심화 공부를 진행한다.
	깜깜한 시골길에 대한 불편이 늘고 있는 철수네 마을, 가로등을 설치해야되는 상황에서 누구의 돈으로 설치할지 고민.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각자 주어진 돈 내에서 능력껏, 원하는 만큼 가로등 설치를 위해 납부함.	전체 나눠준 돈 중 62.8%가 납부된 모습을 보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공재에 대해 공부함. 더 나아가 무임승차 문제까지 다룸.	선배들의 면접에서 나왔던 내용을 예로 들거나, 그림과 영상을 보고 공공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눔.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제공함.

② 김나영 교사님 인터뷰 내용 정리

김나영 교사는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에, 해당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제금융 교육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김나영 교사는 오늘날, 과거에 비해 확연히 학생들이 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특히나 개인 투자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는 공교육 측에서 학생들에게 금융 관련된 사거나 비합리적인 경제금융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개인 투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재 거시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는 반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제금융 관련 소모임이나 자율동아리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학 입시 평가 체제가 계속해서 학생들의 자체적인 활동보다 성적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대학 입시 평가 체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본 팀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수업 외의 경제금융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경제금융 교육활동에 대해 탐구했다. 김나영 교사는 1사 1교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금감원 측에서 1사 1교 전담 교사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구체적인 주제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수업 등을 제공한다면, 1사 1교 수업이 질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경제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경제금융교육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받는지의 여부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제금융 프로그램도 교육 대상자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본 팀은 김나영 교사가 경제 동아리 수업시간에 도입한 실험 경제 수업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보고자 그 모델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 김나영 교사는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상 상황에서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경제 이론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험 경제 수업을 진행한다. 내용학습이 끝나면 그 개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관련 수업 자료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는다. 부족한 부분은 금감원 자료를 참고하거나 이와 관련된 해외 실험 경제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재구성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도 건전한 금융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나영 교사는 본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역량을 강조했다. 즉 경제금융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늘어날수록, 질 높은 경제교육은 늘어간다는 것이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본 수업은 주어진 가상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경제개념을 직접 마주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현실 상황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탐구한다. 이는 개인 금융 관련 내용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의 경제교육에 최적화된 수업 모델로 보인다. 즉, 이는 금융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자들이 스스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에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1사 1교를 관할하는 금감원이 강사와 수업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관리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더 유용한 교육 장치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경제금융교육의 양과 질이 다를 수 있는 선생님의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공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격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



□ 김나영 교사님 동아리 수업 현장

4) 대구교육대학교 김재근 교수님

(1) 김재근 교수님 소개 : 김재근 교수님은 대구교육대학교에 사회과교육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김재근 교수님은 주로 경제교육을 연구하고 계시며, 기획재정부와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제교육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등 여러 방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발전에 힘쓰고 계신다.

(2) 방문 일시 :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3) 방문 목적 : 우리나라의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방문했다.

(4) 인터뷰 내용 정리:

본 팀은 김재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교육 현황과 본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학교 밖에서는 경제금융 교육 붐이 일고 있는데, 정작 학교 내 경제금융 교육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2022년 교육과정에 금융 교육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등 여러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이 높은 상태이다. 금융교육이 교육과정에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같은 교육과정 내 범교과적인 금융 교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재근 교수의 의견이다. 교육과정을 집필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경제금융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금융교육의 발전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들(고교학점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고등학교 수업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본 팀은 김재근 교수에게 해외 프로그램의 한국 도입 및 현지화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김재근 교수는 해외 경제금융 교육과정 프로그램 중 융합적인 사회 과목으로서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 영국의 PSHE와,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융교육 계획을 세팅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캐나다의 시스템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해외 프로그램일지라도 한국으로 들여올 땐 신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과목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일지라도 한국의 전체적인 교육과정 분위기나 추구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분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도입된 프로그램이 입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두어야 한다. 한국에서 입시 체제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을 방지해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화와 구조를 고려해야한다. 한국의 정체성과 잘 맞지 않는다면, 제대로 그 프로그램이 자리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재근 교수는 학생협동조합과 1사1교와 같은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형태는 개인의 승진, 금전적인 이득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론의 실용화가 중요할지라도, 전체적인 경제금융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론적인 습득도 필요하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공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집단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해외사례가 있어도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교사진들이 있고, 교육과정 또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도 상당하다. 따라서 해당 과목의 평가방식에 변주를 주거나 한국 교사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보상과 도움을 주면 공교육 과정에서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덧붙여 경제 지식의 실용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개인 재무 관련 교육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

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5) 유니어스 에듀 박소연 대표님

(1) 유니어스 에듀 박소연 대표님 소개:

박소연 대표님은 금융교육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 강의,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오랜 기간 역설해오고 계신 분이다. 대표님께서 이끄시는 유니어스 에듀는 신한금융희망재단, 삼성카드, 카카오뱅크 등 여러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업하여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발행해오고 있다. 또한 대표님을 비롯한 유니어스 에듀 소속 금융 전문가 강사진 분들은 초중고등학교 경제, 금융 및 자기주도 학습, 진로취업 교육에 출강해오고 있다. 공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교, 및 발달장애 금융교육, 다문화가족센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도 올바른 경제관을 갖고 금융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계신다.

(2) 방문 일시: 2024.06.15.

(3) 방문 목적: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주관하는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참관한다. 이후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민간단체 주도 하의 금융교육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본다. 금융교육 프로그램 홍보 방안, 활성화 방안, 사후 평가 방식, 향후 발전 방향성 등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팀의 선행 연구에 착안하여, 한국에서 비영리단체와 공교육 간 협업이 금융교육 시장에서 빈약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주도 하의 금융교육에서 활용하는 교구의 개발과정, ‘게임화’로 이루어지는 금융 수업의 실효성에 대해 탐구한다.

(4) 탐사 내용 정리:

① 수업 참관

6/15 신한금융희망재단 금융교육 정리 <화폐>

-> 교재 표지 사진 정리하기

단계	동화 내용 제시	스스로의 상황에 적용	개념 학습	게임 진행
세부내용	아이들이 동화 내용을 따라가며 ‘화폐’의 원리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함으로써 개인이 경험한 ‘돈’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고	동화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의 역할에 대해 탐구한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화폐 발전과정을

	록 한다.	민해본다.	다.	O/X게임을 통해 개념 확인을, 보드게임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재확인한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여, 토끼 탐정에게 지구인들에게 소중한 '화폐' 개념을 삭제하겠다고 말한다. 돈 때문에 전쟁 등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원시적인 물물교환 방식으로 돌아간 지구인들은 '거래'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 화폐의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돈이 사라진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건전지가 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떠올리며 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돈의 역할: 교환, 비교, 대가(월급), 저축(은행의 역할)	물물교환-> 물품 화폐 -> 금속 화폐 -> 주조 화폐 -> 지폐

② 박소연 대표님 인터뷰 내용 정리

먼저 수업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 탐구했다. 박소연 대표는 이론 수업을 지양하고, 활동 중심 수업으로 아이들의 금융이해력 함양을 도모하기에, 우선 초중고 연령대별 수업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모두 게임이나 사례를 접목하는 구조는 같다. 그러나 학습 동기부여 방식이 연령대별로 달라진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손으로 만져보는 등 직접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들이 많다. 혹은 동화 등 가상의 스토리를 제시하여, 캐릭터들이 동화 속에서 대신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동기부여를 한다. 반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현실감을 더 자극해야 한다. 제시한 상황을 본인이 직접 겪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기사를 통한 실사례를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

박소연 대표는 진로 과목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사 연수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았다. 교육자들은 특정 내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유니어스 에듀 측에서 개발한 교구, 교재를 어떤 과정

을 통해 개발했고 어떤 의도로 기획되었는지, 아이들이 얻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교사들에게 전달한다. 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과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으로 자리잡는 추세에서 교사들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집중하기 보다 학생들의 태도에 집중해서 교육해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지식 측면에서는 점수가 계속 높아지는 반면, 학생들이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탐사에서는 민간단체와 공교육 간 연계 활동을 알아보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민간단체 측에서는 1사 1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했다. 1사 1교는 금융감독원 주관 하에 민간단체와 공교육이 협업하여 진행되는 금융교육이다. 박소연 대표님도 1사 1교에 강사로 출강하신 경험이 있기에, 현 1사 1교 체제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출강하는 경우, 전문 교육자들이 아니기에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수업에서 상호교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학생들도 수업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기관별 혹은 강사별 1사 1교 실적이 양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얼마나 많은 인원을 제한된 시간 안에 교육했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보니, 1사 1교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사후적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장치가 없다. 이 문제는 비단 1사 1교 프로그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금감원 주도 하의 금융교육은 사전에 정해진 기관들에서 각각 배정된 학교로 교육을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이 미미하다. 한편 기업 차원의 교육도 학부모 카페, 홈페이지 등에만 홍보를 하다 보니 무관심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사전 조사에 따라, 해외 비영리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이 소극적인 이유도 알아보았다. 한국에도 피치 마켓, 아이들과 미래재단, JA 코리아, 짹짹 등 관련 단체들이 있지만 사회적 기업의 수익 구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많고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이 있어 초반 입지를 다지고 확장하기에 좋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로 인해 수익금 사용에 제한이 걸려 기업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대적으로 금융교육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학생들에게 '금융'이라는 영역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곧 자립할 아이들이다 보니, 고교학점제 하의 금융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금융교육이 부재하고 적용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재정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아이들에게는 '재밌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게임화' 기반 교육 방식이 효과적이다. 아이들은 게임 활동을 비롯한 참여형 활동들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협동성, 참을성 등까지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설계 과정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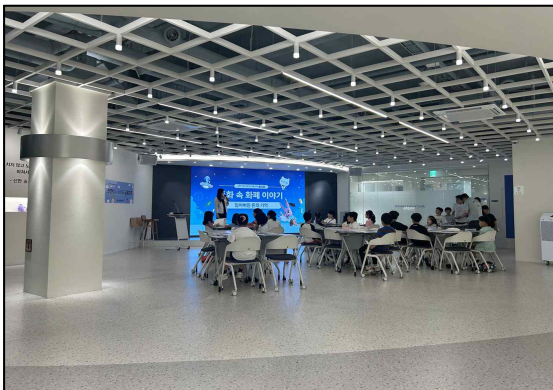
아보자면, 선행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보드게임을 많이 체험해본다. 놀이적인 요소만 있는 보드게임에 어떤 경제금융 콘텐츠를 입힐지 고민하고 그 아이디어의 연장선 상에서 게임을 만든다. 해당 게임은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할 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학교 측에 비치하는 것으로 고려 중이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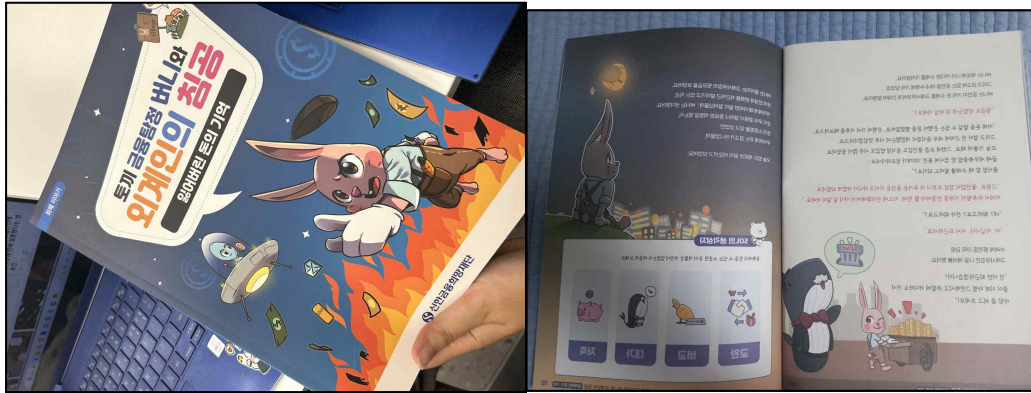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 대상 금융교육 수업을 구성할 때는 현실감, 즉 본인들도 곧 스스로 금융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임을 인지해 한다. 수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으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이 있다. 현실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나라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론 학습은 '경제금융 용어' 학습에 국한하고, '게임 방식'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동시에 금융 분야에 친숙해질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금융지식을 습득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선택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하에 '금융 수업'을 설치하고 20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들이 금융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진로 교육에서는 교육자의 역량으로 수업이 구성되고, 수업 설계에 대한 자율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교육을 진로 시간에 시행한다면, 교육자들은 여러 가지 테마를 다룰 수 있기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진로'는 금융생활과 필연적으로 연결되기에 해당 과목과의 적합성도 높다.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평가방식도 재고해야 한다. 1사 1교 프로그램처럼 실적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양질'로 교육했는가가 평가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비단 공교육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주도 하의 교육에서도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교육이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까지 설치·확장되어 가는 추세를 이어나가야 한다.



□ 신한금융희망재단 주관 초등학생 금융교육 <화폐>



□ 신한금융희망재단 교육 교재

<토끼 금융탐정 버니와 외계인의 침공-외계인의 침공>

4. 해외탐사

1) UCL Ramin Nassehi 교수님

(1) 기관/ 전문가 소개: University College London / Ramin Nassehi 교수님

Ramin Nassehi 교수의 연구는 주로 '경제 교육학'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는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대중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Centre for Teaching and Learning Economics(CTaLE)'라는 경제교육 기관의 회원으로 소속되어있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온라인 경제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경제학과 관련된 Summer Camp 등 다양한 경제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Royal Economic Society'라는 경제학 및 경제학 응용 중심의 경제학회에서 학교지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Higher Education Academy', 즉 대학 교육 및 학습의 질 향상에 전념하는 영국 기관에서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그는 University College London 대학교에서 경제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CORE Econ 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매년 영국 런던의 Bloomsbury 길을 걸으면서, 'Economics Tour'을 진행한다. 이는 벤담, 레닌, 케인즈 등 경제학과 연관성이 깊은 사람들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경제학의 전반적인 역사와 대표 인물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투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투어의 핵심 목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기 전, 경제학에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있으며, Virtual Tour 역시 가능하기에 참여도가 높다. 더욱 나아가, 그는 여러 세미나 및 학회를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경제학에 대해 알려주는 단기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경제 커리큘럼 다양화', '경

제 탐구', 등 경제교육학 관련 연구에 기여한 바가 많다.

(2) 방문 일시: 2024.07.02 오후 4시 30분

(3) 방문 목적:

Ramin 교수님께서 시도하신 경제 투어는, '경제'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런던이라는 도시만의 특성을 살렸다는 점과 동시에 교실 밖에서 경제금융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 차원에서 매우 혁신적인 시도라고 보인다. 학생들이 직접 걸어나가며 체험하고 경제 이론과 실사례를 연결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해당 투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대다수인 대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생들이 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리라 확신하였다. 더 나아가 런던의 유명 대학교 경제 교육학 교수로서 영국 경제금융교육의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4) 인터뷰 내용 정리:

우선 본 팀은 영국 중등학교의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교육 현황 및 영국 학생들의 주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Ramin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국 또한 낮은 금융이해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국 교육의 주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Ramin 교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문 조사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교육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수는 평균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교재에 있는 공식 혹은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와 관련된 실제 세계 속 사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그들의 금융지식은 높지만, 실제 사례와 이론을 연결 짓는 것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교육이 교재 중심, 이론 중심으로 설계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Ramin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세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 방식을 자주 활용함을 밝혔고, 이것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즉, 실제 데이터와 통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론 설명을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Our World In Data'라는 통계 자료를 모아둔 사이트도 언급했다.

영국 교과과정에서 대해서는 은행 업무 그리고 주식·채권시장에 관한 내용이 개선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제금융 지식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차원에서 정교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는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워크샵'을 추천하였다. 학

생들은 워크샵에 참여하며 스스로 본인의 경제금융 지식과 경제상황을 되돌아보며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측에서, IF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도모함으로써 학교 금융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을 기대함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IFS의 경우, 학생들이 경제 거래 상황들을 가상세계 속에서 체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교수는 이러한 기관이 만든 게임, 웹사이트 등을 공교육 수업현장에서 활용해볼 것을 권했다. 나아가 IFS와 같은 경제금융교육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금융기관 등도 학교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볼 만하다. 협력 방안에 대해, Ramin 교수는 효과적인 교육에 있어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에, 정부 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과 강의를 개설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은 교육자들의 경제금융 지식 및 이해력 함양을 도모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 현장을 조성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경제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Ramin 교수가 진행한 Bloomsbury '경제 투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경제 투어처럼 교실 밖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고등학생들은 주로 'Outreach Project⁵⁾'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투어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데리고 경제 투어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는 '인간적인 연결성' (Human Connection)과 상호소통, 유대감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Ramin 교수는 투어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친해진 후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 및 토론하는 것을 지향한다. 투어를 진행하며 이론과 주변 건축물들을 결부시켜 설명하면, 학생들도 이론을 실생활에서 가시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실 밖에서 해당 투어가 진행된다는 점도 해당 분야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Outreach Program을 통해 본 투어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Ramin 교수에게 더 이상 경제가 두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었으며, 이에 대한 그들의 관심 역시 높아졌음을 말해주었기도 한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해당 투어가 경제금융 교육에 있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팀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금융이해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Ramin 교수는 학생들에게 금융이해력이 중요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학생들은 개인적인 경제 거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그 기회비용과 이득을 잘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위해서이다. 학생들이 살아가며 경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려면 금융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Outreach Project란, 영국의 교육적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학교와 특정 대학교들이 연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돕는 프로젝트이다.

마지막으로, Ramin 교수는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넸다. 그는 해당 분야를 가르치는 데에 있어 내용적인 측면과 전달 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교사의 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금융이해력이 낮은 학생들이 많으며 많은 학자들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국 다수의 학생들 역시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재 속 공식과 이론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며 설명하나, 실제 사례와는 쉽게 연결하지 못한다. 이는 영국에서도 여전히 활동 중심의 경제금융교육보다는 교재 중심, 이론 중심적 교육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이해력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은 '실제 사례'와 연결해 사고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이론을 배울 때 실제 사례를 떠올리며 학습이 진행되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사례와 이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경제 투어'처럼 강의실 밖에서 실제 건축물 및 동상들을 함께 보며 관련 경제 이론에 대해 같이 대화 및 토론을 진행, IFS 기관이 만든 다양한 경제 게임을 공교육 수업 상황 속에서 활용, 혹은 'Our World in Data'와 같은 통계 자료 종합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설계하는 교육자의 역할이기에 다양한 정부 산하기관, 금융기관 및 학교가 협력을 통해 선생님의 교육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UCL 캠퍼스) Ramin Nassehi 교수님과의 인터뷰 직후

2) the Money Chairty Workshop- Thomas Tallis School

(1) 기관 소개: the Money Charity 워크숍

the Money Charity Workshop은 영국의 대표적인 금융역량 자선단체인 the Money Charity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the Money Charity Workshop은 금융지식 및 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각자의 상황에 적용해보고, 생각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이는 학생들이 생애주기별로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금융웰빙에 이르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학생들이 향후 실전 금융활동에 투입 되었을 때, 올바른 경제관으로 금융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the Money Charity는 여러 학교에 그들의 워크숍을 소개하고, 워크숍 수업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the Money Charity Workshop을 제공하고 있다.

(2) 방문 일시: 2024.07.03.

(3) 방문 목적: Thomas Tallis School Grade 7 Workshop 참관

: Thomas Tallis School Grade 7 Workshop 참관을 통해 영국 경제금융 수업의 주제, 형태, 환경 등 영국의 경제금융 교육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경제금융교육 수업 형태와 우리나라의 경제금융교육 수업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수업형태의 개선점과 강조점을 찾고자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영국의 '워크숍'의 장단점을 분석을 통해, 기존에 있던 한국의 경제금융교육 수업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금융 교육에 대한 논의까지 해보고자 한다.

* 워크숍 수업의 특징점

- 가상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그들의 실제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학습한 내용을 그에 적용하도록 한다.

- 이론 도출과정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선택지들에 더 집중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 이론 학습은 금융용어 학습에 국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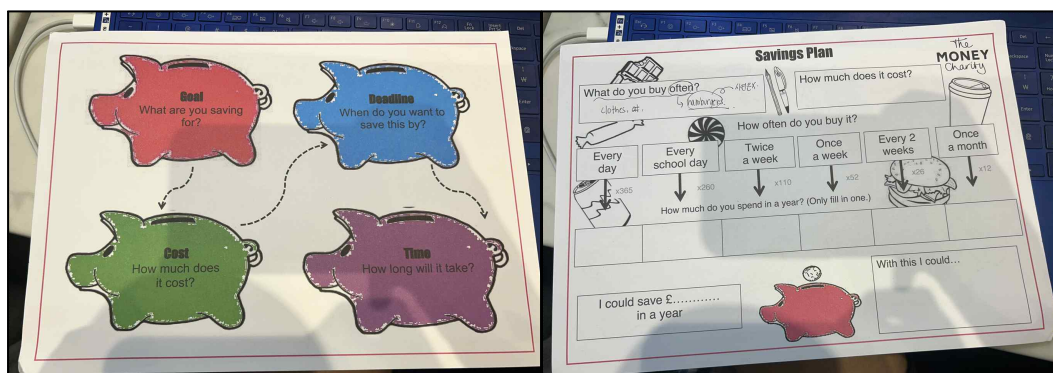
: 저축과 신용 더 나아가 이자개념까지 학습하도록 하였다.

- 즉, 개인 금융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현실적·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한다.

: 수업 내용 <저축(Saving) & 신용(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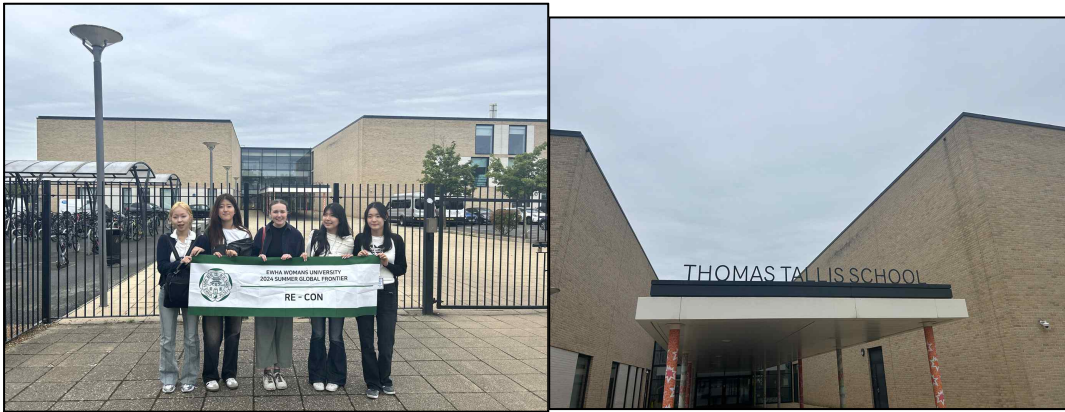
단계	질문	개념 이해 및 원리 이해	학생 본인 상황에서 직접 선택하기 및 미래 계획하기	경제활동 선택지의 장단점 정리
세부 내용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막연히 생각하던 것을 구체적인 것들로 바꿔	실제 경제 금융 생활을 할

	의 경험이나 개념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수업을 시작한다.	서서 어떻게 그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명확한 개념 이해 및 원리 이해를 돕는다.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 본인의 상황에서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때,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여러 선택 상황들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하거나, 유리한 방식을 알려준다.
	1) 저축: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나? 2) 신용: 신용이 무엇인지 아니?	1) 저축: 일상적인 곳에서부터,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음. 예산을 명확히 알고 이를 토대로 구체화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2) 신용: 신용은 돈을 빌리는 힘이다. 이와 더불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붙는 이유도 완벽한 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	1) 저축: 햄버거를 사 먹는데 들이는 돈을 없애면 1주에 18파운드인데, 이 돈으로는 영화관을 갈 수 있고, 1년에 936 파운드인데, 이 돈으로는 여행을 갈 수 있음.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것들을 줄일 수 있을지, 줄이면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봄. 2) 신용: 구체적인 계획 세우는 활동은 없었음	1) 저축: 집에 돈을 보관해두는 유형의 저축과 달리 은행에 보관해두는 유형의 저축은 추가적으로 이자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나 집 보관 유형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진다. 2) 신용: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수업은 참여형 수업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자는 수업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도록 돕는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기회비용을 시각화하고 실제 미래 계획을 세워 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실제 삶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낯선 경제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으며, 더 나아가 학생들이 실제 금융 활동을 하며 마주할 선택지들도 그들에게 자각시켰다. 예를 들어 파산 위기에 놓인 사람은 사채업자나 연고 없는 제3자에게 대출 받아서는 안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업형태는 아이들이 실제 금융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Thomas Tallis School) Grade 7 Workshop 참관 직후 컨설턴트님과

3) the Money Charity- Stephanie Fitzgerald

(1) 기관/ 전문가 소개: the Money Charity / Stephanie Fitzgerald

the Money Charity는 영국의 대표적인 금융역량 자선단체로, 영국 전역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교육, 정보,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여 그들이 생애주기별로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금융 웰빙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들에게는 워크샵,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성인들에게는 워크샵에서 더 나아가 자산관리, 빚,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 대한 조언,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다.

Stephanie Fitzgerald는 the Money Charity에서 영국 전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의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여기에는 'Money Workshops', 'Student Money Manual', 'Teacher Resource Packs'등이 포함된다. 금융 교육, 자선 부문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였으며, 학교 및 National Citizens Service 프로그램에서도 일한 바가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Financial Capability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며 금융교육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방문 일시: 2024.07.03.

(3) 방문 목적:

the Money Charity는 영국의 금융교육 담당 비영리단체로서, 영국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금융 웰빙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교육 장치들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the Money Charity와 공교육 기관 간의 협업이다. the Money Charity는 2010년부터 3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워크숍을 제공했고, 대부분 학교와 대학에서 KS3, KS4, Post-16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비영리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내부적 체계와 지원망, 금융교육 수업 콘텐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법론, 수업과 콘텐츠를 어떻게 평가하고 발전시키는지 등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4) 인터뷰 내용 정리:

the Money Charity 측과 공교육 간의 연계 교육 활동으로 ‘워크샵’이 대표적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 측에서는 선생님과 학교들을 위한 예약 절차를 축소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워크샵 강사들은 지역별로 프리랜서들로 채용하여 지역별 경제 상황을 고려한 강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처들도 여러 곳이다. 정부의 지원은 부재하지만, 여러 회사들과 자선단체 측의 재정적 뒷받침으로 워크샵을 운영할 수 있다.

성공적인 금융교육의 요소로, 기관 측에서는 최소화한 이론 교육, 개인의 인생과 결부한 실사례 바탕 교육, 교육자의 역량을 꼽았다. 특히 교육자 역량을 강조했는데 워크샵에서 강사는 금융이 개인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미래설계,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워크샵 강의 도중 강사는 ‘학생들은 스스로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며, 그것을 사기 위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개인의 소비습관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자는 사전에 아이들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에 따라 금융 이해력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혹은 사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업 중에 아이들의 배경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며 유연하게 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들의 배경에 대해 선불리 추측해서는 안되며, 결국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에 이른다는 구조는 같으므로 전체적인 수업 틀은 유지하는 것이다.

교육자의 높은 역량을 위해 기관 측에서는 비단 채용 과정만 신경 쓸뿐만 아니라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도 제공한다. 먼저 강사를 채용할 때, 금융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밀접한 환경에서 근무해본 사람들을 교육자로 채용한다. 채용 후에는 주기적으로 강사를 훈련시키는데, 연간 2-3일 동안 실시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식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준다. 더 나아가 강사들을 위한 추가적인 배경지식 자료들도 배포하고, 수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 운영진들과 강사진들은 정기적으로 지역별 워크샵을 참관하며 보완점을 고안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학생 및 공교육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질문은 ‘수업이 얼마나 양질이었는가’, ‘수업이 개인의 금융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부족하고,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금융 선택지들의 폭이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워크샵이 청소년들에게 금융태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피드백을 통해 양질의 수업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매년 여름 시즌마다 기관 측에서는 모든 콘텐츠를 리뷰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를 통해 워크샵 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돌아봄으로써 최신 트렌드를 수업에 반영할 수 있기도 하다. 2024년의 경우, 디지털 기반 신용 사기를 새로운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

해당 기관의 워크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워크샵 주관이 무료라는 점, 워크샵 일정을 학교 일정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그 요인이다. 더불어 적극적인 마케팅이 있다. 단체의 컨설턴트가 학교 현장에 가서 워크샵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거나 교사들 커뮤니티에서 워크샵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이메일 마케팅까지 더해짐으로써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 실정이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주목할 점은 단체 유지를 위한 지원망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다양한 기업, 자금 제공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워크샵 운영, 단체 자체적인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조사를 뒷받침할 자금은 충분치 않아 설문지를 개발하고 넓은 집단을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아직까지 ‘양적 평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the Money Charity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질적 평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 사후 제공하는 설문지에서 금융 태도 관련 질문과 더불어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강사 훈련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과 차이가 있었다.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금융업 종사자와 교육 분야 종사자를 모두 채용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방법론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전달력을 높이려 하는 시도는 양질의 강의에 기여한다. 한국의 1사 1교 프로그램을 돌아봤을 때, 금융 업계 종사자들을 대거 채용하여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론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Riverside in Vauxhall) Stephanie Fitzgerald 담당자님과 인터뷰 직후

4) Student Cooperative Manager- Tristan Becker

(1) 기관/전문가 소개: 독일 학생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Tristan Becker

독일에 있는 학생 협동조합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코디네이터가 존재한다. 그 매니저인 Tristan Becker 는 2022년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모든 학생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주 코디네이터로서, 주 교육부와 협동조합 연합을 대신하여 약 80개의 학생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로 학교 상담, 개별 상담, 교수 자료 제공, 워크숍 및 네트워킹 미팅 기획 및 실행을 하고 있다.

(2) 방문 일시: 2024.07.04

(3) 방문 목적:

학생 협동조합의 매니저인 Tristan Becker 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 협동조합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 협동조합이 국가나 학교에서 받는 지원망이나, 그 협력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여 한국의 교육시스템에도 비슷한 활동이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 현지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4) 인터뷰 내용 정리:

독일의 학생 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실제 회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제적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교육 프로젝트로, 학교의 지원을 받아 자유롭게 조직되고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회사 운영과 유사한 경험을 쌓고, 경제적 책임을 이해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는 협동조합원들의 안전과 올바른 운영을 보장하며, 학생 협동조합이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지역 파트너 협동조합과 Genoverband가 지원 네트워크로서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독일의 학생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단체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 학생 협동조합이 위기에 봉착했을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고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다양한 조언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역량, 지속 가능한 개발, 기업가 교육, 금융 역량, 민주적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본 팀과 인터뷰를 진행한 독일 학생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Tristan Becker는 2022년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학생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주 코디네이터로서, 약 80개의 협동조합을 관리하고 지원고 있었다. 주요 업무로 학교와의 상담, 개별적인 지원, 교육 자료 제공, 워크숍과 네트워킹 미팅 기획들을 수행중이었다.

학생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학교의 지원 측면에서 보았을때,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연방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주마다 다르게 행해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 협동조합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교육부와 협동조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인 에센에서는 환경청과 그린 캐피탈 에이전시가 학생 협동조합에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고,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 사례도 있다. 학생 협동조합은 종종 방과 후 활동으로 운영되었고, 학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학교 시설을 지원받기도 한다. 일부 학교는 협동조합을 정규 커리큘럼에 통합하여 운영하였고, 어떤 학교는 비공식적인 모임 형식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하고 실천적인 경제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생들은 직면하는 문제들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더 용감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적 인식의 측면에서 학생 협동조합은 청소년의 경제 및 금융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은 사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능력과 재정적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협동조합 내에서는 회계 관리, 구매 계획, 가격 설정, 연간 감사 등의 학습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의식적이고 비판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 학생 협동조합 외에도 청소년들은 인턴십, 상담 서비스, KAoA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독일의 학생협동조합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학생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협동조합이나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 사례로 Bochum의 학생 협동조합이 그 지역의 시민들이 물 샘플을 제출하고 오염 물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얻었다고 한다. 이러한 활

동은 학생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에서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여러 학생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탐사 결과, 독일의 학생 협동조합은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와 지역과의 연계를 토대로 체계적인 단체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도 학생 협동조합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지원망과 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단체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황과 상반되는 독일 학생 협동조합의 코디네이터와 인터뷰하며 그 조합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 협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학교와 학생회사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코디네이터는 학생 협동조합이 활동하며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해준다.

학생들이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돈에 대한 거시적 관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원단체의 보호망 하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이 점을 독일 학생 협동조합 지원 단체 측에서 보완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매니저 인터뷰를 통해 학생 협동조합 출신 학생들의 성공사례나 그들이 사회적으로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팀은 공교육 내 학생 협동조합 체계의 도입이 학생의 경제관 형성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 (Gymnasium an der Wolfskuhle in Essen) Tristan Becker 매니저님과 인터뷰 직후

5) Student Cooperative-the green club eSG

(1) 기관/전문가 소개: 학생 협동조합 the green club eSG

학생 협동조합 the green club eSG는 5,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여 꾸려나간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인 친환경적인 물품의 생활화와 환경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들은 학교 안팎에서 배포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의사소통하고 지역 내 가게들이나 기업과 다수의 협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와 학교 내의 소속되어 있어 보호를 받기도 한다.

(2) 방문 일시: 2024.07.04

(3) 방문 목적:

실제로 학생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활동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제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개인적 차원, 진로 설계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던 학생협동조합에서의 경험들에 대해 듣고, 한국에 이러한 형태를 도입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추측해볼 것이다.

또한 학생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학교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운영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 학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알아보며 한국에 도입하게 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선행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4) 인터뷰 내용 정리:

본 팀과 인터뷰를 진행한 독일의 학생 협동조합 'the green eSG'는 친환경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두며, 이러한 물건들을 주로 협업한 가게로부터 구입하여 학교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초기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이 활동들을 토대로 현재의 학생 협동조합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협동조합 형태가 되면서 그 활동 아래에서 학생들은 더욱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고 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주로 환경 친화적 재료를 활용하는 로컬 빵집에서 나온 빵, 크루아상, 과자 및 음료를 판매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학교 학생들이 환경 친화적 음식을 더 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선정된 것이다.

학생 협동조합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 근무 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회의도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율되어 있었다.

협동조합 활동은 학생들에게 경제활동 경험과 돈의 흐름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매점 운영을 통해 총 수입을 계산하고 물건의 수요를 예측하면서 돈의 운용에 대한 책임감을 배운다. 실제로 한 학생은 협동조합 경험을 통해

큰 위험 없이 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미래에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협동조합의 경험은 향후 진로나 사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Green Club 활동을 바탕으로 인턴십 기회를 얻은 학생은 새로운 식견을 형성하고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학생 협동조합 운영 성공 요인에 대해 학생들은 자발성과 재미, 학생들이 학생 협동조합의 구조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점, 그리고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팀워크를 통해 협력한 점을 들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미래 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고, 돈 관리와 책임감을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의 권유, 선생님의 활동 참여, 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협동조합에 처음 참여했지만, 활동을 통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점점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협동조합은 학교를 더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친환경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활동 중이다.

(5)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학생 협동조합에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 조직 구조를 개발하고, 사업 계획을 짜는 활동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들은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내에서 직접 친환경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학생 협동조합의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해당 활동으로써 느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그들은 금융태도 함양뿐 아니라 소통 능력이나 팀에 대한 책임감, 민주시민의식 개선 등 다양한 교육적 소양 함양 등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또한 협동조합 활동이 개인의 진로나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의 형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된다는 점, 그 형태가 단순 매점으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제한적이다. 학생들끼리 스스로 그들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대회를 나가는 등의 자율성은 낮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학생협동조합의 운영원리나 목표들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단순히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Schuelergeno, 학교, 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협동조합의 일을 수행할 때 느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한국에 적용할 때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심,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외적 기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 (Gymnasium an der Wolfskuhle in Essen) the green club eSG
물품 판매대 / 협동조합 로고 / 계산대



□ (Gymnasium an der Wolfskuhle in Essen) the green club eSG

6) the mLab - University of Mannheim

- (1) 기관/전문가 소개: the MLab / Cornelius Schneider 교수님
- (2) 방문일시: 2024.0.7.08.
- (3) 방문 목적: 김나영 교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실험 경제 모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the mLab에 방문하였다. 또한 독일에서 실험 경제 모형을 수업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모델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mLab 기관 특성상 실험경제 모형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활용하기보다는 더 나은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 실험 경제 모형을 수업모델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다.
- (4) 탐사와 관련하여 얻은 인사이트:

- 우리가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이다. 그러나 공식이나 이론을 알지 못하면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론과 실용화 중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식과 이론 학습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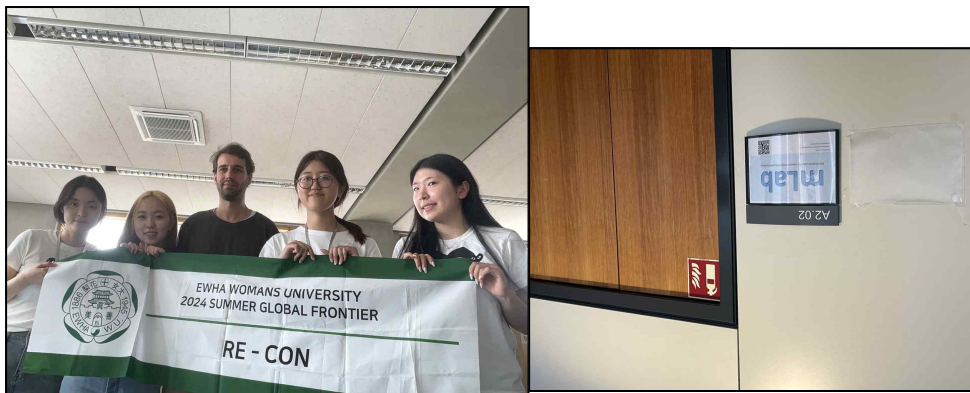
-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1) 세미나

: 세미나를 통하여, 수업시간에 배웠던 경제금융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 간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학생들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어, 간접적으로 수업의 방향성이 옳은지에 대해 평가 가능하다.

2) 참여형 수업

: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주제로 두고, 그에 걸맞는 실험(게임 등)을 교육자가 설계해 실험 경제 모형 기반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University of Mannheim - mLab) Cornelius Schneider 교수님과 인터뷰 직후

III. 결론

본 팀은 한국의 중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경제금융 공교육 시스템 개선 방향성 제안을 위해 참여형 금융교육을 이끌고 있는 영국과 독일에서 탐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한국의 높은 금융지식은 금융태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23 OECD의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지식은 높은 반면 금융태도(56점)는 평균 이하인 실정이다. 또

한 금융교육이나 금융활동의 기회조차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주식’,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 다양화된 금융상품들은 청소년들의 금융선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환경에 따른 금융교육 수혜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금융선택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측면에서 경제 금융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팀은 공교육 내의 금융교육이 이론적 측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의 형태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본격적인 해외 탐사 전, 국내 사전조사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 주제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5개의 국내 기관 답사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 교육과정 및 금융교육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공교육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되며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공교육과 금융기관이 협업하여 금융교육을 진행한 1사 1교 프로그램은 그 취지는 좋았으나 그 인지도는 높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시행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팀은 공교육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민간 단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는데, 그 중 유니어스 에듀를 탐사하였다. 해당 기관에서는 현실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나라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수업 환경, 즉 이론적 지식 전달에 치중한 수업이 아닌 참여형 금융수업을 설계했다. 이에 착안하여 본 팀에서도 이러한 수업모델이 공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덧붙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는 김나영 교사님의 수업도 참관한 결과 학생들은 가상의 경제 상황을 가정하고 활동하며 경제 개념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실태를 파악한 후, 영국과 독일로 해외 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먼저 영국의 교육과정인 PSHE에 주목해보면, 실제 사회와의 연계를 토대로 금융 과목을 가르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secondary 학교와 비영리단체인 the Money Charity간 연계 수업을 참관하여 이를 한국 1사1교와 비교하였다. 이때 the Money Charity의 금융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장기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팀은 양적 평가에 치중한 1사 1교가 the Money Charity의 사후 평가방식을 참고해 교육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독일에서는 학생 주도형 경제활동을 운영 중인 학생 협동조합을 탐사하여 해당 단체에서의 활동이 학생의 금융태도에 미치는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협동조합 내 여러 활동들을 통해 금융태도 뿐만 아니라 책임감, 민주의식 함양을 보다 크게 느꼈다고 했다.

해외기관탐사를 통해 영국과 독일의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금융교육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공통적으로 학생 참여형 금융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팀은 앞서 강조된 학생 참여형 금융교육을 한국의 교육과정과 제도에 맞추어 모델을 도출한 후 경제금융 공교육 시스템 개선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내 탐사 시사점

1)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1)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만큼, 고교학점제가 금융교육에 불러올 시사점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통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최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제·금융 관련 과목을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사가 자체적으로 흥미를 갖는 것만으로도 경제금융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적이다.

(2) 고교학점제 융합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

‘금융과 경제생활’은 2022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의 융합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다. 덕분에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목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넘어감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금융활동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도 기대할 만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가시적이고 직관적으로 와닿을 만한 금융교육 체험활동들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금융교육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교사

(1) 교육자 역할의 중요성

고교학점제 시행은 경제금융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 설계 자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교사 역량이 더 강조되고 있다. 여러 경제금융 교육 전문가들은 경제금융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자들이 스스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에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교사들이 신설된 교육 과목과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금융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한다.

(2) 교사의 역할

교육 환경이 자유로워진 만큼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또한 담당 과목에 대한 교육자의 흥미도 중요하다. 탐사 인터뷰에 의하면, 담당 과목에 대한 교육자의 흥미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자들이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발맞춰, 해당 과목의 평가방식에 변주를 주거나 새롭게 신설되고 있는 여러 과목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공교육 과정에서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김나영 교사의 실험 경제형 수업 모델

주어진 가상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경제개념을 직접 마주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현실 상황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탐구한다. 이는 개인 금융 관련 내용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의 경제금융교육에 최적화된 수업 모델로 보인다. 즉, 이는 금융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금융교육 관련 기관(KBI, KEDI, KDI, 금감원, 교육청)

(1) 금융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금융교육 관련 기관들은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금융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BI(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교육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이때, 내용은 교사들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것이어야 금융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다. KBI는 1사 1교와 같은 경제금융 교육과 관련된 공문을 교사들에게 보내어, 이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KEDI(한국교육개발원)은 주로 경제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시하여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금융교육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표준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한다. 한편 금감원은 따로 금융교육 부서를 만들어서 더 나은 금융교육 제공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교육청은 앞선 금융교육 관련 기관들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을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교육 설계 및 수강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2) 금융교육 관련 기관들이 유의해야 할 점

금융교육에서는 실제 삶과 연계된 금융 프로젝트가 다수 시행되는 해외 교육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자체적인 수입, 소비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훈련할 수 있는 활동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해외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한국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집단들 간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범교과적인 금융교육 과정처럼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어도 이를 한국에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덧붙여 서로 상이한 사회적·문화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4) 학부모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경제금융교육의 양과 질이 다르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교육 차원에서 질 높은 경제금융 교육이 시행되어야겠지만, 학부모들도 이를 인지하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경제금융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5) 1사 1교

공교육과 금융기관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1사 1교의 현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탐사 결과, 1사 1교 시행 학교에서조차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해 무지한 학교들도 많았다. 본팀은 본 교육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1사 1교의 한계점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고안했다.

(1)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의 제작

우선 1사 1교는 양적 측면을 측정하는 실적제라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1사 1교 강사들이 전문 교육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전달하는 역량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현직 교사와 연계를 통해 1사 1교 수업 설계를 제안한다.

(2)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질적 평가

1사 1교를 관할하는 금감원이 강사와 수업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관리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더 유용한 교육 장치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양질’로 교육했는가가 평가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비단 공교육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주도 하의 교육에서도 적용해야 한다.

6) 1사 1교 외 민간단체와 학교와의 협력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20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서 진행되는 외부강사 수업에서 민간단체와 학교와의 협력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금융교육에서 지식의 실용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개인 재무 관련 교육으로 치우쳐 개인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 본인들이 직접 금융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임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방식으로는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이 있다. 현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나라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수업이 단순히 금융지식을 습득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생애주기 별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금융태도 부분에서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 탐사의 시사점

1) 공교육 차원

본 팀은 UCL 소속 Ramin Nassehi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론 학습 시 이를 실사례와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론 학습과 참여형 활동을 별도의 영역으로 두지 않고 각 방법론을 결부시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the Money Charity Workshop의 수업을 참관한 결과, 교육자는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학생들이 금융이론과 개인의 경험을 결부시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학생들이 실제 금융 활동을 하며 마주하게 될 금융 선택지들을 제시하며 그들이 미래 상황에 대해 대비하도록 했다. 이러한 수업 형태는 미래의 금융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그 선택지들과 마주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워크샵 수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워크샵 수업에서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사례에 기반한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며 학습한 내용을 각자의 경험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돋보였다.

② 이론 중심 학습보다는 실제 상황 적용에 집중하여 수업이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해당 수업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한국의 수업 방식에서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탐사를 진행하며, 한국에서 시도해 볼 만한 혁신적인 경제금융 수업방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Ramin 교수님께서 현재까지도 매년 시행하고 계신 ‘Economics Tour’가 그중 하나이다. 해당 경제 투어는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이 역사적·경제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들과 기존에 알고 있던 경제 이론들을 연결하며 이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교실 내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 내용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 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시도해 볼 만한 교육 방식으로 보인다.

the mLab의 Schneider 교수님과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그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와 관련된 실험 및 게임 등을 교육자가 설계하여 실험 경제 모형 기반 수업을 시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 유발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학생들의 지식 습득과 생각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세미나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야 하는 교육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제금융 교육 방식은 여러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본 팀은 위에 언급한 방식들이 고려해 볼 만한 방안들이라고 주장한다.

2) 민간단체와의 협력

영국의 주요 민간단체 중 하나인 The Money Charity는, ‘단체 유지를 위한 지원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다양한 기업, 자금 제공자 등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 설문지 개발 및 넓은 집단 조사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민간 단체가 경제금융 교육에 활발히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UCL의 Ramin Nassehi 교수님도 교육 방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 산하기관, 민간단체, 및 학교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수업에 대한 '평가 방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양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the Money Charity는 '질적 평가'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때 교육 대상자들 및 공교육 선생님들에게 교육 사후 제공하는 설문지에서 금융 태도 관련 질문과 더불어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강사 훈련 방식에 있어서는 the Money Charity의 방식과 '1사 1교' 프로그램을 비교했다. 1사 1교에서는 금융 업계 종사자를 대거 채용하여 이론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The Money Charity는 강사 채용 시 금융업 종사자와 교육 분야 종사자를 모두 채용하고, 정기적으로 강사진들이 교육 방법론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전달력을 높이려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공교육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도 강사 연수 방식에서 이를 참고해야 한다.

3) 학생협동조합 활성화

본 팀은 학생협동조합 코디네이터 Tristan Becker 및 학생협동조합 the green club eSG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학생 협동조합이 지원 단체와 지역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그 운영 체계가 확립됨을 확인하였다. 독일과 한국의 도입 환경을 비교군으로 삼아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에도 학생 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지원망과 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조합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은 편이다.

본 팀은 매니저 인터뷰를 통해 학생 협동조합 출신 학생들의 성공 사례나 그들이 사회적으로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협동조합에 임하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험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학생 협동조합에서 학생들은 주체적인 내부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체계화하고, 조직 구조를 편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들은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내에서 직접 친환경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그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금융태도 함양뿐 아니라 소통 능력이나 팀에 대한 책임감, 민주시민 의식 개선 등 다양한 교육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활동이 개인의 진로나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본 팀은 공교육 내 학생 협동조합 체계의 도입이 학생의 경제관 형성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따라서 학생 협동조합이 한국에서도 활성화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한국에

적용할 때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심,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외적 기회, 자율성 보장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참고문헌

- 김지경 외 2명,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 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 나용호, 「한국과 독일, 스웨덴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경제민주주의 : 경제 영역에 대한 비교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논문』, 2022.
- 박광원, 「경제교육내용이 학생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주영·심영, 「자녀에게 금융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부모의 특성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생활과학회, 2021, 95-108쪽.
- 박형준·김주현,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주안점」, 『금융교육연구』 제8권 제1호, 한국금융교육학회, 2023, 1-14쪽.
- 심재학,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태로 본 청소년 경제이해력 제고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유종열, 「한·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 내용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사회교과교육협회, 2021, 17-38쪽.
- 이윤희, 「영국의 금융교육」, 『경제교육연구』, 제 28권 제 2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21, 27-55쪽.
- 한진수, 「왜 학교 금융교육이어야 하는가?」, 『금융교육연구』, 제2권, 한국금융교육학회, 2017, 25-49쪽.
- 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3 OECD/INFE*」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2024,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8891>, 접속일 2024.03.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2021.12.06.,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339>, 접속일: 2024.07.23.
- 김동인, 「금융 교육 확대 10여년, 영국의 오답노트」, 『시사IN』, 2023.12.01.,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41>, 접속일 2024.03.17.
- 김태호, 「“선생님 저 ‘떡상’했어요”... 중학교 자유학기 금융교육 현장 가보니」, 『조선비즈』, 2024.04.20.,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4/20/I57TVVDZLZEC5IOXMITJLC6NNE/>, 접속일 2024.07.23.
- 송기영, 「20대 금융이해력 49점… 범죄·사기 노출된 금융문맹 청년층」, 『조선비즈』, 2024.01.30.,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1/27/BOMZDHF2NREVVPFMFDFBRMM5EM/>, 접속일 2024.3.16.
-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https://www.ypec.re.kr/b>

[oard/view?pageNum=1&rowCnt=10&no1=5&linkId=1892&menuId=MENU00313&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접속일 2024.03.17.

- 정수정, 「독일의 창업교육 지원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2017.06.28.,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4733>, 접속일 2024.03.16.

- Department for Education, 「GCSE subject content for economics」, 2022.05.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cse-economics>, 접속일 2024. 03.15.

- Economics walk. Connecting economics educators. (2023, October 25). <https://ctale.org/econ-walks/>

- Leora Klapper·Annamaria Lusardi,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resilience: Evidence from around the world”, Financial Management.

- Lührmann M ,Serra-Garcia M ,Winter J . "Teaching teenagers in finance: Does it work?", Journal of banking & finance.

- Lührmann Melanie, Serra-Garcia Marta, Winter Joachim. "The Impact of Financial Education on Adolescents' Intertemporal Choice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 Ramin Nassehi, "UCL Economics Walk: A place-based method of teaching economics.", UCL Centre for Teaching & Learning Economics.

부록

1. 탐사 일정

일자	지역	장소	현지 시간	한국시 간	활동내용	비고
제1일 6/29(토)	런던	인천국제 공항	-	12:40	항공기 이륙 및 출국	
		히드로 공항	18:50	00:50	착륙 및 경유지 도착	한국 시각 기준 6/30 새벽 도착
		Circolo Popolare	20:00	02:00	식당 도착 및 간단한 저녁 식사	
		숙소	21:00	03:00	숙소 도착, 체크인 및 취침	
제2일 6/30(일)	런던	런던 소호	~18:0 0	~00:00	쿠션데이	
		숙소	18:00	00:00	숙소 복귀 및 다음날 인터뷰 준비 후 취침	
제3일 07/01(월)	런던	숙소	9:00	15:00	기상, 아침 식사 후 인터뷰 준비	
		Attendant Coffee Roasters- Fitzrovia	10:30	16:30	인근 카페로 이동 및 RHUL 교수님과 비대면 인터뷰 진행	
		Rock and Sole Plaice	17:00	23:00	저녁 식사	
		숙소	19:00	01:00	숙소 복귀 및 다음날 탐사 준비 후 취침	
제4일 07/02(화)	런던	숙소	09:00	15:00	기상, 식사 후 교수님과의 인터뷰 준비	

		UCL Main Campus	15:00	21:00	UCL로 이동, 16:00에 UCL 교수님과 인터뷰 진행	
		Dishroom Covent Garden	19:00	01:00	저녁 식사	
		숙소	20:30	02:30	숙소 복귀 및 다음날 탐사 준비 후 취침	
제5일 07/03(수)	런던	숙소	06:00	12:00	기상 및 탐사 준비	
		Thomas Tallis School, London	8:30	14:30	워크숍 장소로 이동 및 준비, 9:00-10:00 워크숍 진행	
		Trafalgar Tavern	11:00	17:00	점심식사 및 인터뷰 준비	
		Riverside in Vauxhall	13:30	19:30	The Money Charity 담당자와 인터뷰 진행	
		Vinegar Yard	18:00	00:00	저녁 식사	
		숙소	20:30	02:00	숙소 복귀 및 다음날 탐사 준비 후 취침	
제6일 07/04(목)	런던/ 뒤셀도르프/ 베를린	히드로 공항	08:05	14:05	항공기 이륙 및 출국, 독일로 이동	
		뒤셀도르프 국제공항	10:25	17:25	독일 뒤셀도르프 도착, 비행기 착륙	
		Gymnasium An der Wolfskuhle	14:00	21:00	독일 학생회사 매니저 인터뷰 및 학생회사 탐사	
		Essen Hbf	19:23	02:23	Essen Hbf에서 Berlin	DB 기차

					Hbf로 기차 이동	19:23-23:16
		숙소	23:30	06:30	숙소 도착 및 취침	
제7일 07/05 (금)	베를린	OECD Organisati on für Economic Co-Opera tion and Developm ent	11:00	18:00	독일 OECD 경제협력개발지구 본사 탐방	
		Capvin Rosenhöf e	18:00	01:00	저녁 식사	
		숙소	20:00	03:00	숙소 복귀 및 취침	
제8일 07/06 (토)	베를린	Mitte	~18:00	~01:00	쿠션 데이	
		숙소	18:00	01:00	숙소 복귀 및 취침	
제9일 07/07 (일)	베를린	Deutsche Bank Filiale	12:00	19:00	독일 대표 은행 방문 및 탐방	
		ZOLA	18:00	01:00	저녁 식사	
		숙소	20:00	03:00	숙소 복귀 및 다음날 탐사 준비	
제10일 07/08 (월)	베를린 /만하 임/프 랑크푸 르트	Berlin Hbf	05:26	12:26	베를린에서 만하임으로 가는 기차 탑승	DB 기차 05:26-10:27
		Universitä tsklinik Mannhei m (ZEW)	12:30	19:30	만하임 대학교 교수님, ZEW(유럽 경제연구소) 팀원들과 인터뷰 진행	만하임 대학교 탐사 후 지하철로 Money Museum 이동

		mLab	14:00	21:00	만하임 대학교 경제학부 '실험경제학' 랩실 연구원과 인터뷰 진행	
		Money Museum of Sparkasse Starkenbu rg	16:00	23:00	Money Museum 탐방	Money Museum 방문 후 지하철로 프랑크푸르트 로 이동
		Dorade am Main	20:00	03:00	저녁 식사	
		숙소	22:00	05:00	숙소 복귀 및 짐 정리	
제11일 07/09 (화)	프랑크 푸르트	숙소	09:00	16:00	기상 및 짐 정리	
		La Palma	14:00	21:00	점심 식사 및 탐사보고서 총정리	
		프랑크푸 르트암마 인 국제공항	16:30	23:30	공항으로 출발 및 출국 준비	18:30 항공기 이륙
제12일 07/10 (수)	한국	인천국제 공항	-	13:20	항공기 착륙 및 입국	

2. 인터뷰 사전 준비

본격적인 탐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리플렛, 명함,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리플렛은 해외 기관 컨택 과정에서 본 팀의 탐사 주제와 목표를 명시적으로 들어내는데 활용되었고, 명함은 매 기관 탐사 때마다 개인의 소속과 신원을 밝히는 용도로 활용하였다.

1) 리플렛 제작

리플렛에는 각 팀원의 프로필과 역할, 팀 소개, 소속, 참여 중인 본 글로벌 프론티

어에 대한 소개, 탐사 주제와 배경을 넣어 본 팀이 수행 중인 연구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금융 교육 실태를 간략히 소개해 본격적인 미팅에 앞서 탐사 요청에 응해주신 기관 측에서 사전에 한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Re-con 제작) 프로젝트 리플렛

2) 명함 제작

팀원 개인별 명함에는 소속 학교, 참여 중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명시화하였다.



□ (Re-con 제작) 명함

3) 현수막

해외 탐사에서 각 기관 방문 시에 활용하였다.



□ (Re-con 제작) 현수막

4) 발표 준비

영국, 독일에서 각 탐사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본격적인 인터뷰 및 기관 탐사에 선행하여 본 팀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서는 본 팀 소개, 탐사 주제 및 목표, 탐사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영국, 독일 각 국가를 탐사 국가로 선택한 이유와 해외 탐사를 통해 얻어가고 싶은 점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 (Re-con 제작) 프로젝트 설명 영문 PPT

5) 인터뷰 준비

기관별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 1-2주 전에 메일로 보내드려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녹음이나 영상 촬영이 불가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기로 인터뷰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뷰 작성지를 준비해갔다.

GERMANY INTERVIEW RECON

< the green club eSG >

1. Could you briefly explain how your cooperative is organized and operated?

How did you develop the business model for The Green ESG?

What are the primary products or services offered by The Green ESG?

How do your products align with the principles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Re-con 제작) 인터뷰 답변 수기 작성지
[the green club eSG]

3. 인터뷰 전문

1) 국내 탐사

(1) 서울대학교 박형준 교수님

1. 거시경제적 요소와 금융 교육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거시 경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인 금융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인 금융을 독립된 융합 선택 과목으로 설정하고, 경제 과목에서 거시금융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됨.

-> 이는 개인 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진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

2. 고교 학점제 도입 후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선택률이 높아질까요?

해당 과목의 선택률이 높아질 것

1. '경제' 과목은 수능에서 제외되고, '금융과 경제생활'은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평가 부담이 줄어들

2. 기존에도 상경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기에 선택률은 더욱 증가할 것

3. 금융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확산되어 학생들의 선택이 많아질 것

3. 불법 금융 상품 접근을 교육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교육만으로 막기 어려움-> 불법 금융 상품은 정부의 감독 기능이 중요한 부분임.

-> 하지만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불법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합리적인 금융 행동을 가르칠 수는 있음. 높은 수익률 추구보다는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는 건전한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4. 1사1교 프로그램 외에 비영리단체와 금융기관의 교육 활동이 있을까요?
금융 회사들은 자체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많은 금융교육을 진행중임 - 사례: -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 - Kb나 많은 금융회사들도 개별적으로 각자 목적에 맞게 금융교육 진행 중임 - 비영리단체 JA코리아는 미국의 JA 주니어 어치브먼트의 라이선스를 받아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캠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학생 멘토를 선별해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진행 중
5. 저희가 1사1교 우수 학교들에 전화해 보았을 때, 담당자분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교육들이 진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학교에서는 1사1교가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내실 있는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1-2시간 교육이 1회교육으로 카운트가 되는데, 실적제이기에 표면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음. - '금융과 경제생활'이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금융교육이 내실화되고 확산될 기회가 생길 것. - 선생님들이 개인 금융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의 많은 노력을 요함. 교육자는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 함. 또한, 금융교육이 공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이유로 교사의 업무 부담도 존재함 - 현재 해당 과목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체계화된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대부분 -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며 과목이 다양해졌는데, 교사들이 공부하고 부담해야 할 과목의 개수가 증가함
6. 금융이해력이 높은 국가들의 교육과정 특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영국은 금융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국어, 수학 등 기존 교과 과정과 금융교육을 연결해 가르침 이러한 노력은 학교 교육 전반에 금융교육을 통합시키는 데 효과적임
7.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자율 활동이 늘어날까요?
자율 활동의 기회가 증가할 것 수능 체제와 평가방식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거나 원하는 학문

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 하지만 결국 교육자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므로 교사들도 꾸준히 공부를 하거나 재교육을 받아야함.

(2) 이화여자대학교 최윤정 교수님

1. 금융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정부지침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 중인데, 왜 필수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남았을까요?

기존의 교과들이 중요해서 필수 교과목을 위주로 배정하다 보니 금융과목이 융합 선택과목으로 들어가 필수적으로 편성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음

-이유: 필수 교과목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야 하고, 학습한 내용이 평가 시험의 대상이 됨. 그러나 시험을 보는 순간 수업과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가 떨어짐 -> 이런 점에서 오히려 금융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놔둠으로써 진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더 재미있고 등급 관계없이 더 자유로운 프로젝트 형식이 가능해짐. 덧붙여 수행평가 같은 활동들이 유의미해질 것임.

>> 금융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며 그 과목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짐.

2.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직접 뭔가를 해보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정중의 김나영 교사님이 계신데, 경제동아리나 경제금융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시며, 동아리에서 가능한 심화 실험이나, 체험 경제반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

3. 요즘 금융교육의 추세가 어떠한가요?

[이전]: 금융교육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금융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음.-> 그렇다보니 학생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채권, 투자 등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 수업이 진행됨.

[최근]: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설계하는 추세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이 가능해짐

4. 탐사국인 독일에서 방문하게 되는 기관 중 하나가 학생회사이고, 학생들이 직접 학생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신들의 취지에 맞게 기부하기도 하며 활동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의 특색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에도 끌어올 수 있을까요?

- 독일의 학생회사와 맥락이 비슷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사

레임: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이나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체험해보는 수업들이 있음

ex) 용돈을 스스로 관리해보는 활동: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봄

예를 들어 탄산음료를 먹는 데에 돈을 많이 썼다면 이것을 연관지어 식습관, 건강과 금융 이런 식으로 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 줄 수 있는 소비 내역을 가시화해보는 활동

-> 이러한 것들이 다 프로젝트의 일종인데, 선생님은 그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학생들이 이를 수행했을 때, 본인 나름의 분석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한국의 사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함.

-> 이처럼 참여형 활동들을 발전시키면 긍정적인 것 같음.

(3) 양정중학교 김나영 교사님

1. 아이들이 현재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경제금융 분야는 무엇일까요?
① 투자 : 어떻게 돈 벌 수 있는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② 세상의 이슈를 이해하를 위한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시 경제 내용
2. 선생님께서 실험 경제 수업을 하실 때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수업을 하시나요?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상 상황에서 체험하면서 직접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험 경제 수업을 진행함.
3.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①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
②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이론으로 정리
③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고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수업을 진행함.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관련된 사이트 등을 알려주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줌.
④ 관련된 사례와 논쟁을 제시하여 아이들의 사고확장에 도움을 줌. (실제로 한 학생은 신용-체크 카드 관련 특허를 내기도 함)
⑤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동아리 수업 주제를 선택함.
4. 수업을 어떤 과정으로 설계하시나요?
① 경제교육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업에 활용하면 좋을 자료들을 찾으려고 노력함.
② 금감원 자료를 이용하되, 주제만 이용하고 그와 관련된 실험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하며 수업을 계획함.
5. 최근 금융 경제교육 붐이 일고 있는데, 수업현장에서 그러한 변화들을 느끼시나요?

① 돈에 대해서 아이들의 관심이 높아졌음. 특히 개인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렇기에 아이들의 금융 활동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함. 또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 관련된 사기(보이스피싱)와 비합리적인 경제금융 행위에 대한 경계심에 대해서도 확실히 교육해야 함.
②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함. 그러나 입시가 변화하면서, 자율동아리 내용 등을 생활기록부에 어필하기가 어려워져 이러한 자체적 활동들이 점점 활성화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6. 바쁜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께서 실험경제 동아리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선생님들이 퀄리티 높은 추가적인 경제금융 수업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김나영 교사님은 당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실험경제 동아리를 설계하셨고, 진행하시는 중임. -교사가 관심을 가지면 퀄리티 높은 추가적인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임. 따라서 교육연수에서 교사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재테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면 교사들이 관심이 모이고, 그 내용과 중요성을 탐구하다 보면 교육의 필요성을 자연스레 느끼는 것으로 보임.
7. 금감원,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적인 프로젝트는 실제로 참여도가 높을까요?
① 1사1교 :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는 프로젝트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아쉬움. 조금 더 발전하여, 제대로 된 관리(연락), 구체적인 내용의 수업, 정기적인 수업,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 전문 강사님의 수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낌.
② CT은행, 신한은행 등 여러 은행들의 자체적인 프로젝트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중심,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음.

(4) 대구교육대학교 김재근 교수님

1. 현재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이 논문이랑 기사로만 보았을 땐 ‘미흡하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반적으로 미흡함. 특히나 학교 경제 교육이나 금융교육이 매우 미흡함. ① 학교 내 경제금융 교육 : 전혀 되지 않고 있음. ② 학교 밖 경제금융 교육 : 사실상 경제금융 ‘붐(Boom)’인 상태. 교육 증권회사나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 교육팀이 열심히 하고 있음.
2. 최근 들어서 경제금융교육이 역설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제금융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2022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도입된 것은 공교육 경제 금융 교육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임. 1)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역사가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교육이 교육

과정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임. 2022 교육과정이 전체적인 경제금융 교육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라 볼 정도로 이번 교육과정의 변화가 경제금융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기대감이 큼. 2)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아쉬움. 초등학교에서부터 금융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과정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영역은 요원해보임. 중학교에서도 통합 사회의 금융 단원, 경제 단원에서 조금씩 경제금융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정도에 그쳐 아쉬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함.
3. 영국이나 독일은 주요과목 자체에서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구조를 짜놓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범교과적인 금융교육 수업이 가능할까요? 교육과정 내 범교과적인 금융 교육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1) 교육과정 내 범교과적인 금융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 나라의 상황과 성향마다 범교과적인 금융교육 추진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음. 이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집단마다 중요시하는 가치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범교과적인 금융교육이 어려운 것인데, 이는 ‘교육과정의 정치학’으로 설명할 수 있음. 금융교육 내용을 다른 교과에 따로 넣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을 개정해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상당할 것임.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범교과적인 금융교육은 어려움. 2) 현 상황에서,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 범교과적인 금융수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이미 마련되어있거나, 마련될 예정인 과목 (ex. 경제수학)이나 프로그램(ex.고교학점제)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임. - 경제금융 과목 중심 고교학점제 커리큘럼 예시: ex. 1학년: 공통 통합사회 / 2학년: 경제 / 3학년: 금융과 교양과목인 ‘인간과 경제’ 선택 *즉, 범교과적인 금융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고교학점제라는 새롭게 열리는 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된다고 생각함. 4. 1사 1교라는 프로그램을 했던 학교들한테 전화를 돌려본 결과, 담당자 분들도 잘 모르고, 다른 교직원분들은 아예 1사 1교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이 현재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이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1사 1교 홍보 현황: 현재 한국금융연수원(KBI)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1사 1교’를 홍보하고 있고, 관심 있는 교사들이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는 구조임. 그러나 교사들이 받는 공문의 양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KBI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1사 1교’ 홍보 내용은 묻히기 쉬움. 2) 1사 1교 활성화 방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함(인센티브 지급 등). 인센티브의 형식은 금전적, 개인적인 승진 등 다양할 수 있음.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1사 1교 자체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제대로 활성화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기대함.
5. 1사1교 외에 한국에 있는 이렇게 민간단체들이랑 공교육이랑 협업해서 하는 활동들이 또 있을까요?
거의 없음. 그러나 학교랑 무관하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따로 모집해서 금융교육을 시켜주는 모습은 꽤나 볼 수 있음.
6. 저희는 경제금융교육에서 이론 습득하는 거랑 이걸 실용화하는 거랑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습득과 실용화가 연결되려면 공교육 차원에서 어떤 장치(연결고리)들이 있어야 할까요?
이론 습득이 직접적으로 실용화로 이어지는 내용은 개인 재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직접적으로 실용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경제금융 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습득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함. 이론적인 지식만을 제공하며 꼬마 경제학자를 키우는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인 부분들을 싹 자르기에는 논란이 있을 것임. 7. 해외 경제 금융교육 과정 프로그램 중에서(굳이 영국과 독일이 아니더라도) 혹시 한국에서 도입했으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1. 영국의 PSHE: 융합적인 사회과목인 영국의 PSHE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함. 실천적인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2. 캐나다의 국가 금융교육 시스템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는 프로그램): 캐나다에는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라고 하는 금융 소비자 청이 있음. 이 금융 소비자청 측에서 내셔널 스트레티지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함. 관련 법률도 있음. 국가적인 안건으로 금융교육 시스템을 세팅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임. 우리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8. 해외 프로그램들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현지화할 때) 시스템 상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1. 다른 과목들과의 조화 2. 교육학적 의미(추구하는 방향성) 3. 수능 체제에서의 위치(필수/선택과목) 4. 한국의 문화와 구조
9. 독일 학생 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실제 제품, 서비스를 직접 기획해서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학생 주체적인 활동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실질적 자금 운용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한국에도 도입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도 주로 학생들이 조합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기부활동도 진행하는 단체들이 주로 카페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인지도가 낮음. - 학생 협동조합의 장점: 학생들이 직접 돈을 벌고,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고 메뉴를 개발할 지 연구하며 자본주의의 핵심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한계점: 한국에서는 학업 등의 현실적 문제로 학교에서 활발히 운영되기에는 어렵기에 국가적 지원 필요함.

(5) 유니어스에듀 박소연 대표님

1. 초중고 연령대별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되시나요?
[공통점]: 초중고 학생들 모두 금융지식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두 그룹 모두 게임이나 사례를 접목하는 방식은 같음. [차이점]: 동기부여 방식이 연령대별로 달라짐. -초등학교 학생들: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는 걸로 호기심이 자극되며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음. 동화 등 가상의 스토리를 많이 제시함. -중고등학생들: ‘현실이다’라는 거에 놓여졌을 때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됨. 따라서 기사를 통한 실사례를 더 많이 보여줌.
2. 초중고 교사들에게 금융교육을 연수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고 강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당장 학교 현장에서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궁금해함. 따라서 개발한 교구, 교재 같은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하게 됐고, 어떻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는지, 아이들이 얻어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교사분들에게 전달함. 교육을 할 때 ‘내가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이러한 내용이 이해 가능한가’ 중심으로 접근을 함.
3. 그러면 그 금융교육 연수를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은 주로 경제교사분들이신가요?
주로 진로 과목 선생님들이 오심

-이유: 진로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를 다뤄야 하고 또 진로는 금융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음.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돈을 목적으로 취업해야 되고 돈을 버는 과정에 놓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을 느끼심.
4. 공교육 현장에서 현재 생기부 기재를 예컨대 자율동아리 기재를 금지하는 등 축소하는 상황에서 금융교육 활성화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금융교육은 정규교과과정으로 자리잡는 추세임. -발전 방향성: 교육 자체는 이론적인 교육으로 지식 전달이 중심이 되기 보다는 ‘태도’를 바꾸는 게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유: 금융지식 측면에서는 점수가 계속 높아지면서 금융 상품, 투자 등의 개념은 잘 알고 있는데,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5. 1사 1교 프로그램 외에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금감원 측에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있음.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한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8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그 수업들이 ‘금융태도’에 초점을 점차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사전·사후 테스트지를 통해 교육을 듣기 전후를 비교할 수 있음. - 사전·사후 테스트지: 현재 지식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태도를 물을 수 있는 질문들도 추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 태도를 물을 수 있는 질문: ‘나는 돈이 삶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돈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다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등 금융 생활에 어떤 태도로 임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
6. 1사 1교 프로그램은 강사별로 교육의 질 편차, 일회성, 미흡한 관리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가진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까요?
-현 1사 1교의 한계점: 1.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할 때 학생들의 눈높이에 잘 맞추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이 교육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낌. 2. 임직원들이 전문 교육자들이 아니다 보니 학생들의 산만한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함. 역으로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3. 1사 1교의 실적이 양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얼마나 ‘잘’ 금융교육을 시켰는지가 아니라, 몇 명을 몇 시간 안에 교육했는지가 평가 대상임. 이로 인해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따라서 수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로 발전되어야 함.
7. 기업 금융 교육은 보통 1-2회 성으로 진행되는데,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전까지의 교육: 8회차 교육으로 학생들이 테마별로 동화를 하나씩 배우고 관련

금융교육 교구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졌음. -축소된 이유: 양적 평가로 실적이 매겨지기 때문에 축소됨. KPI에서 인원 수에 대한 실적을 매기기 때문에 작년 8회차 교육을 현재 4회차 교육으로 축소하게 됨.
8. 중고등학생들 교구 개발하실 때는 어떤 흥미 요소들을 넣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교구: 재미 요소 & 여러 상황 설정들이 더 담김. 필수로 교육해야 하는 경제 용어들을 제외하면, 이론 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흐름과 금융 상품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함. ex) 생애 주기별로 발생 가능한 금융 상황 체험 게임: 학생들이 직업과 소득을 먼저 뽑음 > 교통사고, 질병, 저축, 연말 정산, 전세금, 헬스장 이용권 등 다양한 지출 상황과 마주하게 됨 (보험 카드를 뽑으면 사고 상황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투자금을 뽑아 조각 투자, 코인 투자 등을 경험하게 됨) &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카드 등도 있음
9. 교구 개발이나 그 설계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설계 과정: 뉴스 스크랩 등 선행적인 자료 수집 -> 교육과 관련없는 보드 게임을 많이 체험해봄 -> 놀이적인 요소만 있는 보드게임에 어떤 경제 금융 콘텐츠를 입힐지 고민함. ex) 발달장애인,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유니벨 금융 부탁해'라는 할리갈리 변형 게임: 일기 카드를 읽고 본인이 사야 하는 물건과 구입 장소를 확인함
10. 그러한 게임들은 시중에 판매를 하고 계신걸까요? 우선 요청하는 학교들, 특수 기관들만 대상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학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중임.
11. 기업이나 금감원의 금융교육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금감원 주도 하의 금융교육의 경우, 외주 업체들을 많이 씬. 이미 정해진 기관들에서 매칭된 학교로 교육을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이 미미함. 2. 다른 금융기관들도 학부모 카페, 홈페이지 등에만 홍보를 하다 보니 무관심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기는 어려움. 혹은 교육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이 또한 일회성을 띠음. 그러나 신한금융희망재단 측의 경우, 유튜브를 활용해 관련 동화, 동요들을 업로드 하여 학부모 대상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함.
12.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금융교육을 선택한 학교들이 많은 추세일까요? 아직까지 아이들의 니즈는 직접 체험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금융'이라는 영역에 대한 장벽이 아직까지 높은 것 같음.
13. '금융'이라는 영역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 '재밌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함. 이를 위해 '게임화' 기반 교육 방식이 효과적으로 보임. 그러나 성인들 사이에서는 '보드게임'이 교육과 거리가 멀다,라는 인식이 아직 만연한데, 이러한 게임 활동, 참여형 활동들을 통해 경제, 금융 지식 뿐만 아니라 참을

성, 협동성, 승패에 승복하는 태도 등까지 학습할 수 있기에 그러한 활동들은 유의미하다고 보임.
14. 고교학점제에서 금융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까요?
금융교육은 고등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함. -이유: 자립할 시기와 가까운 시기이다 보니, 금융교육이 부재하고 적용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재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비전문가들에게 들은 내용으로 제3금융권 등에서 빌려 쓰거나 돈을 쪼개 쓰지 못해 고정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관리해야 함.
15. 한국에서는 비영리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보시겠습니까?
한국의 비영리단체: 피치 마켓, 아이들과 미래재단, JA 코리아, 짹깅 등 [한계점]: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많고 법인세 인하 등 혜택이 있어 초반 입지를 다지고 확장하는 데 좋음. 그러나 이로 인해 수익금 사용에 제한이 걸려 기업의 입지를 유지하는 게 어려움. 특히 비용 사용처가 분명해야 되다 보니, 자금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문제임.
16. 한국에서 금융교육이 확장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동향들이 있을까요?
- 공기관들의 적극적 동향: 금천구청 미래교육지구, 구로구, 중구청 프로그램 개설 등이 이루어졌음. 또한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에서도 학부모 교육 및 방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경제, 금융교육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2) 해외 탐사

(1) UCL Ramin Nassehi 교수님

1. 교수님의 견해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금융이해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1. 개인적인 이유: 학생들은 개인적인 경제 거래 상황을 위해 금융이해력이 필요함.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의 비용과 이득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고, 이 때에도 금융이해력이 중요함. 2.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함: 학생들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텐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현재 영국 중등학교의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교육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국 또한 낮은 금융 이해력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금융이해력 관련 영국 교육체계의 주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설문 조사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강점과 약점을 파악

하고 금융 이해력 교육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
3. 교수님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제교육학, 경제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모든 연구와 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궁극적 목표: 일반 시민의 기본적인 경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경제 지식이 요구됨. (ex:인플레이션 목표, 영국 중앙은행의 역할, 정부 예산 등.)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모든 시민이 경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4. 평소 UCL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왜 학생들이 그 부분을 어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UCL 학생들은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수리적 능력이 이미 뛰어난 학생들이기에, 다른 학생들과 다름. 따라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함.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교재에 있는 공식 혹은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와 관련된 실제 세계 속 사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함. 즉, 그들은 공식을 외우고, 잘 알려진 이론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하지만, 실제 사례와 이론을 연결 짓는 걸 어려워함. 이는 학생들이 교재 중심, 이론 중심의 교육을 습득하며 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5. 특정 부분에 있어 교육이 부족하여, 더 나은 방법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의 단원 혹은 분야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이러한 특정 부분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1. 은행업무, 특히 중앙은행 업무 (Banking, especially Central Banking) 2.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고 차분하게 설명을 한다면, 해당 부분의 학습 이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함.
6. 고등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Bloomsbury에서 개최되는 '경제 투어' 등 교실 밖에서도 활동을 진행하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고등학생들은 주로 'Outreached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투어에 참여하게 됨. (Outreached Project란, 영국의 빈곤한 지역들에 있는 학교들과 특정 대학교들이 연계되어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프로젝트.) - 이러한 학생들을 데리고 경제 투어를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레 그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고등학생들에게는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 - 방식 차원에서는 '인간적인 연결성' (Human Connection)과 소통, 유대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따라서 투어를 진행하면서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며, 친해진 후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 및 토론을 하려고 함. 경제 이론을 설명하며,

옆에 보이는 건물들, 장소들, 건축물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어를 진행하다보면, 학생들도 이론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실제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껴, 그들에게 도움이 됨. 교실 밖에서 해당 투어가 진행된다는 점도 학생들이 경제에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에 더욱 효과적임.
7.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 이해력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워크샵이라고 생각함. - 학생들은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실제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제 지식을 되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입해서 더욱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 워크샵 운영비용 및 참가비용은 비싸지만, 이것이 그럼에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8. 경제 및 금융 개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세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 ex) 영국 학생들에게 금융 정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 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Bank of England’를 소개하며 영국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 가르침.
9. 금융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의 경제 연구를 중등학교 커리큘럼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예시로 IFS(Institute for Fiscal Studies) 기관의 경우, 경제 거래 상황들을 가상 세계 속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만들. 이러한 기관이 만든 게임, 웹사이트 등을 공교육 수업 상황 속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10. 학생들의 금융 지식이나 경제 지식 수준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몇 가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나 프로젝트(예: CORE Econ 프로젝트)를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 방식을 자주 활용하고,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함. 즉, 실제 데이터와 통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론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됨.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Our World In Data’라는 통계 자료를 모아둔 사이트를 주로 활용.
11.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에 경제를 설명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술과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술과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 교실에 있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대면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기술을 통한 수업 및 온라인 수업은 경제적 격차를 부각시키며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에게는 상위 계층의 학생들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대면 수업이어야 함. 그러

나, 줌 혹은 온라인 수업을 통한 교육 역시 도움은 된다고 생각.
12. 금융 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정부 기관, 금융 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효과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따라서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등이 협력하여 선생님을 더 잘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더 많은 경제 금융 정보를 가르치는 워크숍 혹은 강의를 개설한다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경제 금융 지식 및 이해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13.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교육 분야에서 일하면서 성공사례나 중요한 학습 순간을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앞서 언급했던 경제 투어의 경우, Outreach Program을 통해 투어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았음. 경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 역시 성공적이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경제가 두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해줌. 따라서 경제 투어 전체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
14. 교실에서 경제교육 기술을 향상하는 데 열정을 갖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궁극적으로, 교실에서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려는 교육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경제를 가르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함. 1. 내용적인 측면 2. 전달 방식 이 두가지 측면에 있어 수업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데에 있어 교사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함.

(2) the Money Charity- Stephaine Fitzgerald

1. 영국의 십 대들 사이에서 금융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The Money Charity가 시행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전략은 무엇인가요?
1. 워크숍 주제들: 연금 & 보험 & 학생으로서의 금융 선택 & 생애주기별 자금 운용 2. student money manual: 대학생 신분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3. teacher resource packs: the money charity 측에서 교육을 나가지 못할 때 요구되는 사전지식 없이 단체 측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교육 가능함
2. 십 대들의 금융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The Money Charity가 공교육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요?
1. 선생님과 학교들을 위한 예약 절차를 간단히 축소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킴 2. 워크숍 강사들: the money charity 직원이 아니라 지역별 프리랜서들, make local connections & 지역별 경제 상황 고려하여 강의 전달 (ex. London과 Scotland 의 경제상황 등에 맞춰서 아이들 교육함)

3. 2014년부터 secondary 학교와 the Money Charity 간 협업 확대
3. The Money Charity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과 협력할 때 직면하는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 정부의 지원 없이 단체의 역량만으로 금융교육 과제를 수행해야 함 - 공교육 기관 교사의 역량: 1. 많은 업무로 추가적인 금융교육 실시 어려운 경우가 많음 2. 교사의 금융이해력 3. ‘금융’이라는 문제가 사적 문제와 엮여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음
4. The Money Charity가 금융 교육 이니셔티브와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과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corps financial services, organizations -trust and foundations 예를 들어) 1시간 당 250파운드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기관 담당자 비율, 교육 컨설턴트 비율, 출장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업 시수를 지원할지 각 기관에서 결정 가능하다. - 정부의 지원은 미미; 정부 측에서는 이미 금융 내용이 PSHE 등 교과과정에 있고, 그 내용이 현실과 다소 괴리된다고 바라본다. 현실에서 개인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수 있는데, 금융 수업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5. 십 대들을 위한 성공적인 금융교육 커리큘럼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 금융이 개인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고민해본다: 미래설계 & 자금운용 계획 (ex. 워크샵 강의 중 실제 질문: ‘스스로의 인생에서 뭘 원하며, 그것을 사기 위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이론 수업은 최소화한다. 아이들에게 금융 선택에 있어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자금운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교육자는 아이들의 가정환경, 성장배경에 따라 금융이해력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수업한다. (ex. 활동지 작성해보게 하기, 계속 아이들이 선택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관련 질문 던지기)

6. The Money Charity가 금융 문해력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교사 및 교육자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 및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채용 조건: 청소년들이 많은 환경에서 근무해본 사람들을 교육자로 채용 (ex. 10년 이상 은행업 종사 경력자, 교육자 유경험자, 회계사 등 채용) -강사 훈련방식: day-long induction, 아이들 대상 교육 전달방식 공유, 서로의 교육방식 피드백하고 팁을 공유함, 강사들을 위한 추가적인 배경지식 자료들 배포, 강사들을 위한 연간 훈련 2-3일 동안 실시함 -정기적으로 지역별 워크샵을 참관하며 보완점 고안하고 피드백 제공
7. The Money Charity가 십대들의 금융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및 지역 사회와 어떻게 협력하나요?
-the Money Charity 내에서 ‘청소년, 청년 교육’ 관할 부서 & ‘성인 교육’ 관할 부서로 나뉘어짐 -성인 교육 관할 부서: 여성 센터, 장애인 복지관, 노숙자 센터 대상 교육 실시 -가족 워크샵 개최: 가족 단위로 금융 관련 활동, 부모 대 아이 구조로 게임 활동도 실시, 가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선택에 대한 대화를 하도록 유도, 부모는 아이들의 금융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금융 활동에 관한 얘기를 가정에서 개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함
8. The Money Charity가 다양한 배경의 십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ing: 수업 중에 아이들의 배경을 캐치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거나 수업 전에 교육자분들에게 아이들 주요 정보 전달받아 아이들의 배경과 관련된 예시 상황을 제시하려고 함 -아이들의 배경에 대해 선불리 추측하려고 하지 않음. 아이들 각 집단 별로 맞춤 수업 상이하게 제공하지만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까지 이룬다는 구조는 같으므로 전체적인 수업 틀은 같음.
9. The Money Charity가 십대들을 위한 금융 문해력 프로그램의 영향과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강의 끝날 때마다 qr 코드로 안내함): 질문 예시) 1. ‘How confident would you say you were managing money before the workshop and how confident would you say you are now? (워크샵을 수강하기 전후의 돈 관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2. ‘The workshop has helped m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my money.’(워크샵은 내 돈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1-10 중에

자체 평가로 점수 매김)

-학교 선생님들, 예약 담당자님들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 얼마나 예약 절차가 간단했는가, 단체 측에서 제공하는 워크샵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유익했는가, 수정사항은 없는가, 에 대한 질문이 설문조사 안에 포함됨

Thinking about the group as a whole...

How would you rate the groups ability to manage their money?

How willing do you think they were to talk about money to the people around them?

How would you rate the groups confidence in making decisions about money matters?

The Workshop has helped m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my money

The Workshop has helped me to understand what choices I can make about my money

I feel I now have the skills to manage my money better

The activities delivered were engaging and relevant to the workshop content

□ (the Money Chairty 제공) 설문 질문

10. 설문 조사 질문들을 구성할 때 금융이해력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금융태도, 금융행위, 금융지식)을 모두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 요소들을 고려한 설문지의 한계점: 시간 부족 & 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질문들을 구성했을 때, 질문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음

-2018년 Impact Survey: 외적 평가 요소(사회적 배경 고려) + 내적 평가 요소(금융이해력 고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의 한계점: 금전적 지원 부족 & 미성년자로서 신용이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금융 선택지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워크샵이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힘들

11. 금융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왜 받기 힘든지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금융 과목 말고도 정부에서 신경써야 할 교육들이 많고 이 과목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선으로 교육해야 할 과목이라고 공문을 내리기는 어려움

12. 청소년들이 금융 지식을 실제 생활 시나리오에 통합하도록 효과적으로 이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the Money Charity 측에서도 느끼는 가장 주된 과제임

-이유: 학생들은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마다 부모님의 월별 지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실생활에 적용하는 양상이 다름

-해결 노력:

1. ‘What can you do differently?’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각자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함. (ex. A친구는 스스로의 상황에서 무엇을 절약할 수 있을까?) 2. 저당권이나 신용 등 아이들의 미래의 상황을 다룰 때는 ‘너가 그 사람이면 어떻게 행동할래?’, ‘너가 그 사람에게 줄 조언을 뭘까’라고 질문하며 ‘Case Study’ 적극적으로 활용
13. 디지털 도구와 자원이 십대들을 위한 The Money Charity의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술적 자원 활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됨 ex) ‘Budgeting’: 이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웹사이트 소개함 (the Money Chairty의 budget builder 등) -COVID 계기로 활성화되어 디지털 활용 방안 연구 중
14. The Money Charity가 십대들의 변화하는 금융 교육 요구를 어떻게 최신으로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응시키나요?
매년 여름 시즌마다 모든 콘텐츠를 리뷰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함 -워크샵 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돌아봄으로써 최신 트렌드 반영 2024년의 경우, 수업 중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경험에 기반한 콘텐츠를 개발 중 (ex. 2024 새로운 주제: 디지털 기반 신용 사기, 재물 불법 착취를 다루게 됨; 웹 기반 문자 사기, 이메일 사기의 실사례를 제시함 급여 명세서 읽는 법, 세금 등도 추가됨)
15. The Money Charity의 활동이 어떻게 홍보되나요? 십대들 사이에서 높은 참여율을 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청소년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함으로 워크샵 참관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됨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업으로 관심을 끌어야 하며, 스스로 금융 선택의 순간에 놓일 것이라는 현실감을 제공함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 소셜 네트워크; 단체의 컨설턴트가 학교 현장에 가서 워크샵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기도 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을 교육자들끼리 공유함으로써 홍보되기도 함
16. The Money Charity의 교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워크숍 주관이 무료라는 점 & 학교 일정에 맞출 수 있다는 점 &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임 (the Money Charity 측에서 먼저 학교 측들에 ‘하실래요?’ 물어보고 제안함. 그리고 학교 측에서 신청하기도 함)

(3) Student Cooperative Manager- Tristan Becker

1. 독일 학생 협동조합의 구조 및 운영 원칙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구조] 독일의 학생협동조합은 실제 회사가 아니라 학교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협동조합의 법적 형태를 모방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며 자유롭게 조직될 수 있음. [운영원칙] 1. 학교는 항상 모든 것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프로젝트의 실제 매출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항상 보장해야 함. 2. 학생 협동조합을 뒷받침하는 Genoverband는 회원이 되기로 결정한 모든 학생 협동조합에 우산 및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학생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또한 주 및 그 너머의 많은 학생 협동조합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설립 및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조언함. 3. 학생들이 회사 설립과 운영의 모든 필수 요소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경제적 역량, 지속 가능한 개발, 기업가 교육, 금융 역량, 민주적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
2. 학생 협동조합 매니저로서 어떤 업무와 책임을 맡고 있나요?
2022년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모든 학생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주 코디네이터로서, 주 교육부와 협동조합 연합을 대신하여 약 80개의 학생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학교 상담, 개별 상담, 교수 자료 제공, 워크숍 및 네트워킹 미팅 기획 및 실행 등을 포함한다.
3. 독일 교육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학생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나요?
독일에서 교육은 연방 주의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모든 연방 주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개별적으로 조직됨. 여기(인터뷰 한 장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이상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동조합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협동조합을 뒷받침하는 주 코디네이터가 존재함.
3-1 독일 정부, 지방 당국 또는 비영리 단체가 학생 협동조합에 제공하는 지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도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에센에서는 환경청과 그린 캐피탈 에이전시가 조직하는 많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있음. 따라서 학생 협동조합은 항상 거기에 등록할 수 있고 상을 받을 기회들도 있음.

3-2. 독일 교육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 협동조합을 지원하나요? (예: 수업 중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 학교 시설 제공 등)
- 학생 협동조합이 받는 지원은 각 학교마다 상이함. 종종 방과 후 기타 자원이 제공되기도 함. 학생 협동조합은 학교 회의와 학교 관리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지원 업무도 수행함. 또한 학교의 한 시설을 지원받기도 함.
3-3. 협동조합의 활동이 정규 학교 커리큘럼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나요?
여기서도 학교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부 학교는 학생 협동조합을 커리큘럼과 교육 상황에 확고하게 통합하고, 또다른 학교의 학생 협동조합들은 오히려 비공식적인 그룹으로 더 많이 운영됨. 각 학교는 학생의 규모, 연령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존재할 것임.
3-4. 학생 회사가 성과가 저조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는 무엇인가요?
지역 파트너 협동조합과 우리 팀(genoverband)이다. 관련된 누구든지 언제든지 genoverband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면 상담이나 현장 지원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할것임.
4. 매니저의 입장에서, 학생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1. 경제적 역량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하고 실천 기반의 교육의 제공 2.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습 과정의 구현과 민주주의의 촉진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유롭게 시도하고 학습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으며, 실수를 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허용되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용감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하게 됨. 이는 또한 그들의 개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5. 우리 팀은 독일의 OECD 재정 태도 지수가 높은 이유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주도의 참여적 경제 활동인 학생 협동조합이 청소년들의 재정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인터뷰 대상자 (매니저)는 이러한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함. 학생들은 사업 활동과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더 큰 즐거움과 동기부여, 성공을 가지고 일하고 학습하게 될 것임.
5-1. 학생협동조합이 청소년의 경제 및 금융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 학생들은 주로 사업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신의 부서, 인력, 프로세스 등을 결정하는 책임을 짐. - 민주적으로 이사회를 선출하고 협동 투표를 통해 모든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경험.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 능력과 개인의 재정적 능력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질 수 있음.
5-2.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 학생협동조합 내에는 회계 관리 및 반영, 구매 계획 및 수행, 가격 설정 및 논의, 협동조합의 연간 감사 수행 및 분석 등 구체적인 학습 기회가 많이 있음.

- 장부를 기입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에서도 학생들은 결정적인 행위자가 되며 더욱 의식적이고 비판적인 판매자나 소비자가 될 수 있음. -> 이것들은 언급된 능력(금융태도나 지식)을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분야임.
6. 청소년들이 학생 협동조합 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경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협동조합 외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활동에는 인턴십과 상담 서비스가 포함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RW)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KAoA 프로그램도 있음.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건강한 직업적 인도를 받아 학교를 졸업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또한, 기업 계획 및 창업 아이디어 경쟁을 조직하는 추가적인 네트워크도 존재함.
7. 학생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경제적 측면 현재 학생회사들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에 경제적 책임이 발생함 - VAT 부과도 포함함. 이로 인해 현장의 많은 의사 결정자가 방해받고 때로는 재단의 협의 과정이 힘들고 다소 길어짐. 하지만 우리는 솔루션과 상담 형식도 연구하고있는 중임.
7-1. 학생협동조합의 관리자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 주 및 연방 차원의 많은 정치적 의사 결정자들과 대화하고 서로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설명 비디오, 유인물, 워크숍 등 이 주제와 기타 주제에 대한 지원 형식을 개발 중임.
8. 학생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나(인터뷰 대상자)에게 있어 모든 학생협동조합은 신념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며, 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추구하며, 수년 동안 존재하는 성공 사례임.
8-1.최근 성공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오랜 역사를 지닌 학생 협동조합인 "Keppels Früchtchen eSG" 그들은 여러 세대의 학생들을 위해 현지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과 주스를 생산해왔음. 그들은 추가적인 사업 목적과 협력을 구현해 왔으며 이제 주 정부의 2024년 특별 공약상후보로 지명되며 특별한 영광을 얻게 되었음.
8-2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지속 가능한 활동, 장기적인 영향, 학생, 교사, 파트너 협동조합의 감독자 및 기타 지역 지지자들의 특별한 헌신이 있었기에 학생 협동조합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9. 학생들은 협동조합에 참여한 후 어떤 길(선택하는 진로)을 가게 되나요?

1. 학생들이 실제 회사 창업 과정에 뛰어듦
2.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음
그 외 다양한 진로들이 존재하긴 함.
9-1.협동조합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나요?
-2021/2022 학생 협동조합에 참여한 Mr Moritz Kaiser라는 학생 그는 현재 의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Solargenossenschaft Esse eG 감독 위원회의 명예 회원이기도 함. 오늘날 그는 학생협동조합의 맥락에서 많은 기술을 연마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성장 할 수 있었다고 말함.
10. 학생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학생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협력한 프로젝트나 활동이 있나요?
거의 모든 곳에서 학생협동조합은 지역 환경과 함께 성장함. 학생협동조합은 다른 진정한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사와 지역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통해 중요한 시너지 효과와 상생 상황을 발전시킨다.
- 사례: 만약 Bochum(지역명)시민이라면, 그 시민으로서 그는 보훔에 있는 학생 협동조합과 연결되어 있는 물 샘플을 제출하고 오염 물질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음. Bochum의 학생협동조합은 수년 동안 이 작업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음.
10-1. 지역사회 내 학생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학생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에서 매우 환영받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종종 지역 이웃의 협력이 있기도 함.
- 사례: 올해 Green Club eSG는 지역의 시장에게 명예 멤버십을 수여받기도 함.

(4) Student Cooperative-the green club eSG

1. 여러분의 협동조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the green eSG의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요활동]
1. 쉬는 시간에 친환경적인 물건을 파는 일. ->이러한 물건들은 지역 가게와 협업하여 구하는 경우가 많음.
2. 물건을 파는 일 외에 학교 내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실천하기도 함.
[사업 모델]
초기 사업 모델은 학교 내에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관한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이 활동들을 발전시켜 지금의 학생 협동조합이 설립됨.
-> 학교 프로젝트에서 등장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학생 주도적 사업 운영으로
2. 여러분은 주로 어떤 제품을 팔고 그 제품이 환경 지속 가능성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나요?
[판매물품]
주로 로컬 빵집에서 나온 빵, 과자, 음료수를 판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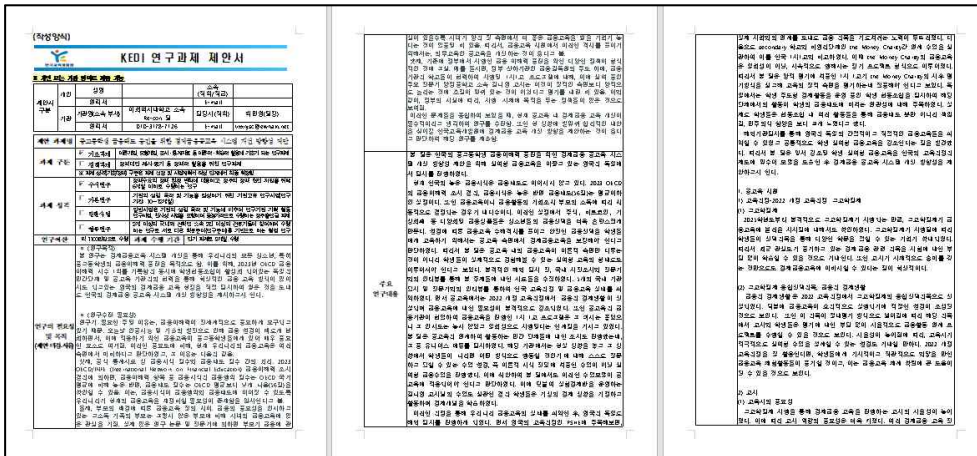
-> 이처럼 환경친화적 재료들을 활용하는 가게들과 협업함으로써 학생들이 환경친화적인 음식을 더 자주 접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함.
[‘환경 지속 가능성’ 목표와의 부합한 정도] 거창한 활동들은 아니지만 타 학생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물품을 많이 접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교내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이루어내었다는 점이 학생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부합함.
3. 학생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일과 학교에서의 학업적인 공부의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혹 협동조합의 일들이 학업을 방해하지는 않나요?
학생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음. 따라서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시간대의 조정이 유연하기에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또한 그 외의 회의들도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4. 여러분의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최우선의 목표] 1. 학교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학생들에게도 친환경 물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환경 관련 인식들을 발전시키는 것. -> 사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식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과 모으기’ 같은 반 대항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이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실제 채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함 2. 학생 협동조합의 일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얻는 것 -> 실제로 학생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함
5.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이 있나요? 금전적 지원 외에 받고 있는 지원이 따로 있나요?
정부 측에서 관심은 보이지만 정부로부터 따로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음. 학교에서 받는 지원이 더 큰데, 학교 측에서 내부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함. 또한 해당 협동조합이 학교 내 프로젝트에서 발전한 만큼, 학교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많고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함
6. 여러분(학생들)이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순히 친구가 가입해서, 선생님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혹은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협동조합 일을 시작했지만, 협동조합의 활동들이 환경친화적인 요소들을 학생들의 삶에 확대·적용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기에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음. 작게 시작한 활동들이 점점 확장되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학생들도 많은 책임감을 갖게됨. 스스로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상생활

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전파하는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선사함. - 한 학생은 협동조합이 큰 리스크 없이 사업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협동조합에 참여하였다고 함. 여기서 마주하는 위험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지 배울 수 있었다고 함. 이러한 경험을 살려 미래에 학교를 졸업하고 실제 비즈니스에서 이를 적용해보고 싶다는 개인적 목표를 밝힘. - 단순히 회계나 계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주요 목표인 학생도 있음. -> 학생 협동조합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회계와 자금 관리에 대해 배우게 되며, 이는 실천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learning by doing)이 될 수 있다.
7. 물건을 팔고 사는 등 학생협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행동을 한 적 있나요? 또한 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나요?
매점을 운영할 때 판매한 물건 총 수입을 계산하고 물건의 수요를 예측하는 일을 한 적이 있음. 이러한 활동으로 학생들은 경제적 행위를 하며 돈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돈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 책임감을 느끼게 됨.
8. 학생 협동조합에서의 일을 통해 진로나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된 점이 있나?
- 학생들 중에는 협동조합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지역 내 인턴십을 경험한 학생들도 있음. - 같은 주의 또 다른 학생 협동조합과 연결되어, 필요 시 그들과 의사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힘. - 다른 학생 협동조합과의 교류를 통해 가져오고 싶은 사업 아이템 (사례: 재사용컵)을 대상으로 교내과학동아리와의도 논의한 경험이 존재함.
9. 이 프로젝트는 5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지속되는데 기여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자발적이고 재미있다는 점 - 학생들은 자신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새로운 시도를 실천해볼 수 있는 얻었고 이는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가 됨. -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지고 팀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한 점. - 팀의 일원들이 서로 다른 프로젝트와 연결되면서 더 큰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외부 기업과도 협력한 경험 사례: 일본의 Pilot Pan Corporation과의 협력 경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등의 경험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함
10. 학생 협동조합에서의 경험이 미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협동조합에서의 경험이 미래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함.

- Green Club을 통해 인턴십 기회를 얻은 학생은 이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자신의 경력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힘.
- 학생들에게 돈 관리와 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심어줌

4. 결과물

1) KEDI 제안서



□ (Re-con 제작) KEDI 제안서 일부

2) 소책자 형식 제안서



□ (Re-con 제작) 소책자 제안서 일부